

行政刊行物登錄番號
11-1550107-000019-01

學術研究叢書 51

경주 구황동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00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

■ 표지사진 : 유적 전경

발 간 사

인간이 살아온 흔적은 그들이 남겨놓은 유형의 물질자료에 의해 우리에게 그 단편적인 모습을 전해줄 뿐입니다. 그들의 흔적은 이런 직접적인 자료에도 남아있지만, 그들이 당시의 자연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살아왔던가 하는 궁금증을 주변의 자연환경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게 합니다. 인간은 환경에 순응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상당부분 변형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흔적들 역시 고고학 조사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비록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후대의 행위에 의해 그 원형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성과물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사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십 수 년 전부터 우리의 고고학적인 조사도 단순한 유형의 물질자료 - 유구나 유물 -를 찾고, 그를 통해 과거를 해석하고 분석하려는 기존의 틀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고고학적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인접 학문과의 공동연구 체계가 활발히 진행된다는 것을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이제 당연한 조사과정의 일부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연구소에서 보고하게 되는 경주 신라왕경숲 조성구간에 대한 조사 성과 역시 기존의 유구나 유물 중심의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옛날 신라 때부터 역사상에 자주 등장하는 북천의 흐름이 지금까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가 하는 문제는 당시는 물론, 그 이후의 역사적 사실들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비록 유구와 유물은 많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연환경이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그것을 왜 조사하여야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였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 속에서 늘 묵묵히 우리 문화유산 조사, 연구에 애쓰는 우리 연구소 직원들의 노고에는 달리 뭐라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연구 환경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런 조사의 진행과정에서 항상 자문과 협조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성과가 그분들의 노고에 누가되지 않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지 병 목

目次

發刊辭

目次

圖面目次

寫真目次

일러두기

I. 머리말	11
II. 遺蹟의 位置 및 環境	13
III. 調査經緯 및 經過	18
1. 調査經緯	18
2. 調査經過	18
3. 諮問會議	21
IV. 遺構調査 內容	23
1. 調査坑別 現況	23
가. E360 라인	23
나. E400 라인	37
다. E440 라인	52
라. E480 라인	64
마. E520 라인	74
바. E570 라인	80
사. E600 라인	85
아. E640 라인	90
자. E660 라인	94
차. E700 라인	101
카. E740 라인	103
2. 土層狀態	106
3. 遺構	109
가. 堤防	109
나. 粘土帶	111
다. 甃층	111
V. 石造物	114
VI. 맺음말	117

圖 面 目 次

도면 1.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위치도.....	15
도면 2.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조사갱 배치도	20
도면 3. N256E36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25
도면 4. N280E36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26
도면 5. N300E36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27
도면 6. N326E36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28
도면 7. N360E36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29
도면 8. N245E40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39
도면 9. N280E40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41
도면 10. N306E40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42
도면 11. N320E40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43
도면 12. N340E40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44
도면 13. N234E44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54
도면 14. N280E44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55
도면 15. N300E44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56
도면 16. N320E44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57
도면 17. N340E44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58
도면 18. N250E48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65
도면 19. N260E48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66
도면 20. N280E48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67
도면 21. N300E48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68
도면 22. N320E48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69
도면 23. N232E52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75
도면 24. N250E52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76
도면 25. N230E57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81
도면 26. N250E57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82
도면 27. N230E60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86
도면 28. N250E60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87
도면 29. N230E64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91
도면 30. N214E66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95
도면 31. N212E70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99

도면 32. N211E74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104
도면 33. E440 토층도	107
도면 34. E600 토층도	108
도면 35. 점토대 추정 배치도	112
도면 36. 석조물 실측도	115

寫眞目次

사진 1.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전경.....	16
사진 2.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위성사진.....	17
사진 3. ① 조사내용 브리핑, ② 현장설명	22
사진 4. ① N256E360 조사갱(북에서), ② N256E360 조사갱 서벽 ③ N256E360 조사갱 토층 세부	30
사진 5. ① N256E360 조사갱 제방, ② N256E360 조사갱 제방 세부	31
사진 6. ① N280E360 조사갱 점토대, ② N280E360 조사갱 점토대 단면	32
사진 7. ① N280E360 점토대와 생토층 경계 세부, ② N280E360 조사갱 점토대 직하 생토층 노출상태	33
사진 8. ① N300E360 조사갱 (북에서), ② N300E360 조사갱 서벽, ③ N300E360 조사갱 토층 세부	34
사진 9. ① N326E360 조사갱(북에서), ② N326E360 조사갱 서벽, ③ N326E360 조사갱 토층 세부	35
사진 10. ① N360E360 조사갱 전경(북에서), ② N360E360 조사갱 북벽, ③ N360E360 조사갱 토층 세부	36
사진 11. ① E400 라인 전경(북에서), ② N245E400 조사갱(북에서), ③ N245E400 조사갱 토층 세부	45
사진 12. ① N245E400 조사갱 제방, ② N245E400 조사갱 제방 세부	46
사진 13. ① N245E400 조사갱 점토대, ② N245E400 조사갱 점토대 단면	47
사진 14. ① N245E400 조사갱 점토대 세부, ② N245E400 조사갱 점토대 직하 생토층 노출상태	48

사진 15. ① N280E400 조사갱(남에서), ② N280E400 조사갱 서벽, ③ N280E400 조사갱 토층 세부	49
사진 16. ① N306E400 조사갱(북에서), ② N306E400 조사갱 토층, ③ N320E400 조사갱(남에서), ④ N320E400 조사갱 토층	50
사진 17. ① N340E400 조사갱(북에서), ② N340E400 하상퇴적층과 생토층 노출 상태, ③ N340E400 조사갱 토층 세부	51
사진 18. ① E440 라인 전경(북에서), ② N234E440 조사갱(북에서), ③ N234E440 조사갱 서벽 축대와 토층 세부	59
사진 19. ① N234E440 조사갱 제방, ② N234E440 조사갱 제방 하층	60
사진 20. ① N280E440 조사갱(북에서), ② N280E440 조사갱 생토층 노출상태, ③ N280E440 조사갱 토층 세부	61
사진 21. ① N300E440 조사갱(북에서), ② N300E440 조사갱 잡석 노출상태, ③ N320E440 조사갱(남에서), ④ N320E440 조사갱 토층, ⑤ N340E440 조사갱(북에서), ⑥ N340E440 조사갱 서벽 토층	62
사진 22. ① N340E440 조사갱 토층 세부, ② N340E440 조사갱 운동화밀창 노출상태, ③ N340E440 조사갱 각종 쓰레기 노출상태	63
사진 23. ① E480 라인 전경(북에서), ② N250E480 조사갱(남에서), ③ N250E480 조사갱 토층 세부	70
사진 24. ① N250E480 조사갱 생토층, ② N250E480 조사갱 파이프 노출상태, ③ N260E480 조사갱(북에서), ④ N260E480 조사갱 토층, ⑤ N280E480 조사갱(남에서), ⑥ N280E480 조사갱 토층 세부	71
사진 25. ① N280E480 조사갱 토층 세부, ② N300E480 조사갱(북에서), ③ N300E480 조사갱 토층 세부	72
사진 26. ① N320E480 조사갱(북에서), ② N320E480 조사갱 생토층 노출상태, ③ N320E480 조사갱 토층 세부	73
사진 27. ① N232E520 조사갱(북에서), ② N232E520 조사갱 서벽, ③ N232E520 조사갱 토층 세부	77
사진 28. ① 232E520 조사갱 발자국 노출상태(북에서), ② N232E520 조사갱 발자국 세부	78
사진 29. ① N250E520 조사갱(남에서), ② N250E520 조사갱 서벽, ③ N250E520 조사갱 토층 세부	79
사진 30. ① E570 라인 전경(북에서), ② N230E570 조사갱(북에서), ③ N230E570 조사갱 토층 세부	83

사진 31. ① N250E570 조사갱(북에서), ② N250E570 조사갱 토층 세부	84
사진 32. ① N230E600 조사갱(남에서), ② N230E600 조사갱 토층 세부	88
사진 33. ① N250E600 조사갱(남에서), ② N250E600 조사갱 생토층 노출상태, ③ N250E600 조사갱 토층 세부	89
사진 34. ① N230E640 조사갱(북에서), ② N230E640 조사갱 서벽, ③ N230E640 조사갱 토층 세부	93
사진 35. ① N214E660 조사갱(북에서), ② N214E660 조사갱 서벽, ③ N214E660 조사갱 토층 세부	97
사진 36. ① N214E660 조사갱 빨층, ② N214E660 조사갱 벽돌 노출상태, ③ N214E660 조사갱 양은쟁반 노출상태	98
사진 37. ① N212E700 조사갱(남에서), ② N212E700 조사갱 서벽, ③ N212E700 조사갱 축대 단면, ④ N212E700 조사갱 토층 세부, ⑤ N212E700 조사갱 다짐층, ⑥ N212E700 조사갱 다짐층 세부	102
사진 38. ① N211E740 조사갱(북에서), ② N211E740 조사갱 서벽, ③ N211E740 조사갱 토층 세부	105
사진 39. E440 토층 세부	107
사진 40. E600 토층 세부	108
사진 41. ① 제방(북에서), ② 제방(동에서)	110
사진 42. 점토대(서에서)	112
사진 43. ① 빨층(동에서), ② 빨층과 생토층 경계 세부	113
사진 44. ① 초석 1, ② 초석 2, ③ 장대석 1, ④ 장대석 2	116

일러두기

- 본 보고서는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의 의뢰로 2006년 5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실시한 '경주 구황동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의 시굴조사 내용을 수록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 표기한 좌표는 황룡사지와 신라왕경유적 발굴조사시에 사용한 황룡사지 발굴좌표(목탑지와 금당지 사이의 중심점)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토층도를 포함한 유구 도면의 축척은 1/100, 석조물은 1/20로 정하였으며, 해발고도는 토층도의 수평선에 표기하였다.
- 조사갱의 크기는 너비 4m, 길이 20m를 기본으로 하되 지형의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하였다.

I. 머리말

북천[關川]은 경주 보문호와 형산강 사이를 동서 방향으로 길게 이어주고 있으며, 예로부터 토함산 계곡에서 쏟아지는 홍수에 의하여 범람이 빈발하였던 소하천이다. 문헌기록, 금석문 등에 의하면 신라시대는 물론이고 조선시대까지도 북천이 수시로 범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20세기까지도 범람은 계속되었다.¹⁾ 제방이 무너지는 범람의 위치에 따라 북천의 선형은 남북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변형되기도 하였는데, 현재의 북천 남쪽과 북쪽 외곽에서 확인되는 하상퇴적층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²⁾

이번에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주 구황동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는 현재 북천의 남안에 접하여 있으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천 내부에 속하여 있었다. 1970년대 초반 북천 제방을 보강하면서 일부 선형을 변경함으로써 북천에서 제외되어 잡종지로 편입된 지역이다. 이후 공유지 불하과정을 거쳐 사유지로 바뀌면서 최근까지 경작지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2006년,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이 지역에 신라왕경숲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신라왕경 등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존재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연구소가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된 지역이다.

발굴 결과, 부지 전역에 걸쳐 모래, 자갈 등으로 형성된 하상퇴적층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라왕경과 관련된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에서 점토대, 제방 석축, 뿔층 등이 노출되었다. 이 가운데 점토대를 제외한 제방 석축, 뿔층 등은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발굴 이후,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점토대가 노출된 구역은 복토를 시행하는 등의 선행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신라왕경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번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의 원고는 I 장부터 VI장까지의 대부분을 유홍식(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이 집필하였으나 IV장의 조사개별 현황과 V장은 유홍식과 윤가량(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이

1) 『三國史記』만 보더라도 유리이사금 11년(34)으로부터 경문왕 10년(870)에 이르기까지 30여 건의 홍수 기록이 남아 있다. 대부분 민가가 유실되고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등의 일반적인 홍수 기록이지만, 구체적으로 북천[關川]이 범람했다는 기록도 아달라이사금 7년(160), 소지마립간 18년(496), 원성왕 1년(797) 등 3건이나 있다. 한편, 경주시 동천동에 위치하는 현덕왕릉으로부터 동쪽으로 200m 남짓 이격된 금학산 남단의 북천변에는 자연 암석에 해서체로 음각된 알천수개기가 위치하고 있다. 18세기 초에 발생한 북천의 범람과 수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에 관련한 사람들의 공을 기려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제작하였다고 한다. 불과 300여 년 전의 금석문으로서 북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경주읍내의 피해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1959년에 발생한 태풍 ‘사리’는 북천의 범람은 물론이고 시가지 전역이 물바다가 되는 등 경주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4, 『긴급유적발굴조사보고서 -경주 동천동 삼성아파트 신축부지-』
_____, 2005,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 I』
_____, 2008, 『경주 구황동 황룡사지전사관 건립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공동 집필하였다. 사진촬영과 유구실측은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유홍식, 윤가량, 최민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정은주(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이명옥(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등이 각각 분담하였으며, 토층도 트래싱 작업은 윤가량이 전담하였다. 도면, 사진을 포함한 발굴조사보고서 편집은 유홍식의 주도하에 윤가량이 담당하였다. 전체적인 교열은 이주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최종적인 감수는 지병목(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이 각각 담당하였다.

한편,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지원을 담당한 경주시청 문화재과 이채경님과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 이광선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II. 遺蹟의 位置 및 環境

경주 구황동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은 경북 경주시 구황동 883-44번지 일원의 42필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적 중심부의 경위도 좌표는 동경 129° 4' 55", 북위 35° 50' 12"에 해당한다.(도면 1)

동 유적은 북쪽으로 천군로,³⁾ 서쪽으로 구황로,⁴⁾ 남쪽으로 원효로⁵⁾ 등으로 에워싸여 평면 삼각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유적의 규모는 동서 길이 500여m, 남북 너비 150여m로서 면적 40,570㎡(12,272평)에 달한다.(사진 1) 전체적으로 주변 도로에 비하여 3m 가량 낮게 형성된 저지대이며, 동서 양단의 표고차가 약 2m에 달하는 동고서저형 부지이다. 천군로 개설 이전까지는 북천에 포함될 하상이었으나 북천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발굴 직전까지는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동 유적 서쪽에 위치한 '구황동 원지 유적'과는 구황로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접해 있으며, 동 유적 남단에 접한 원효로를 기준으로 그 남쪽으로는 신라왕경 도시유적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동 유적 북쪽으로는 제방을 겸하는 천군로를 경계로 북천이 위치하고 있다.

북천은 너비 200여m, 총연장 6km 정도에 달하는 소하천으로서 보문호에서 출발하여 서남쪽으로 흘러내리다 헌덕왕릉 남쪽의 보문평야 북단에서 'ㄷ' 모양으로 휘어진 다음 경주분지 중심부를 동남-서북쪽으로 가로질러 형산강에 합류한다. 평소에는 건천이지만 우기에는 홍수와 범람이 잦았으며, 1959년의 태풍 '사라' 때에도 범람하였다.

북천 주변에는 신라시대의 문화유적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데, 북천 남안에는 서쪽으로부터 전량지, 분황사, 구황동 원지 유적 등이 차례로 접하여 있으며, 북천 북쪽에는 헌덕왕릉이 위치하고 있다.(사진 2) 이들 유적의 공통점은 항상 북천 범람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유적별 내용과 각각의 범람 흔적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량지는 신라시대 궁궐터로 전해지는 유적으로서 1937년에 부분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전당지·장랑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그 존재가 알려졌다. 1993년에는 양정으로 개설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회랑형 건물지를 비롯한 다수의 유구를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⁶⁾ 유적 동북우의 장랑지 일부가 북천 범람에 의하여 유실되었다.

분황사는 신라 선덕여왕 3년(634)에 창건되어 성쇠를 거듭하였으나 1,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법등을 이어오는 고대가람이다. 분황사 가람배치 등을 구명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석탑 북쪽에 '品' 자형으로 삼금당을 배치한 소위 1탑3금당

3) 경주 시내와 감포를 연결하는 4번 국도로서 1970년대초 북천 제방독을 보강하면서 북천 남안을 따라 신설한 강변 도로이다.

4) 울산 또는 경주IC와 포항을 연결하는 7번 국도로서 남북 방향으로 길게 놓여 있다.

5) 천군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경주-감포간 4번 국도로서 동서 방향으로 길게 놓여 있다.

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3, 『전량지·남고루 발굴조사보고서』

식 창건가람과 이후 3차에 걸친 금당의 변천과정 등을 확인하였다.⁷⁾ 금당 북쪽에서 확인된 바 있는 층단상 지형의 북쪽 하층부에서는 두겹계 형성된 하상퇴적층을 가운데 두고 상하 유구가 중복된 상태로 확인된 바 있다. 이는 하층 유구가 북천의 범람에 의하여 매몰되었음을 말해주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구황동 원지 유적은 분황사와 동 유적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황로를 사이에 두고 동 유적과 접하여 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8세기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의 원지를 비롯하여 축대, 담장, 건물지, 도로 등의 각종 유구를 확인하였다.⁸⁾ 이 유적의 연못 등에서도 분황사 북쪽의 하층부와 마찬가지로 하상퇴적층을 가운데 두고 상하로 중복되어 있다. 한편, 여기서 확인된 바 있는 지하수맥 차단시설(점토대)은 동쪽으로 계속 이어져 동 유적의 서남우를 에워싸는 듯한 평면형태를 취하고 있다.

분황사와 구황동 원지 유적 발굴시에는 주거지, 지석묘 등의 유구를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펼쳐진 청동기시대 문화층을 확인한 바 있다. 구황동 원지 유적 남쪽 지표상에는 남방식 지석묘가 현존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북천변에는 청동기시대에 이미 대규모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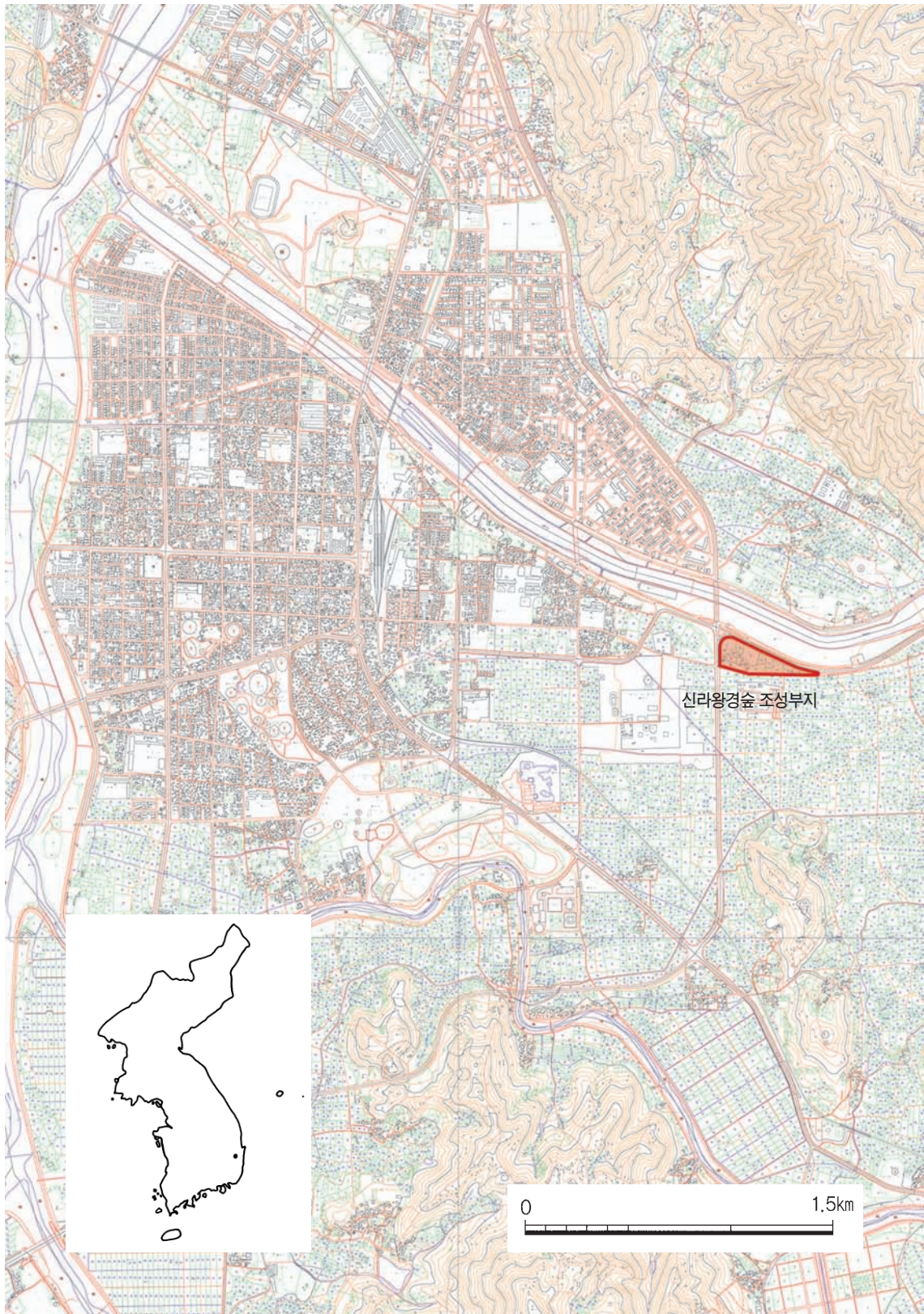
북천 북쪽으로는 동 유적의 동북향으로 현덕왕릉⁹⁾이 위치하고 있다. 평면 원형의 반구형 봉토분으로서 가장자리에는 지대석을 깔고 판석을 돌려 호석을 설치하였다. 탕석 표면에는 방향을 따라 십이지신상을 조각하였으며 그 외곽으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난간을 돌렸다. 일제강점기에는 북천이 현덕왕릉 남쪽으로도 범람하여 왕릉 남쪽 지근거리까지 물길에 생겼다고도 한다.

이 밖에 동 유적 남쪽으로는 신라왕경 도시유적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동 유적 서남우로부터 200m 남짓한 이격거리를 둔 서남쪽에는 황룡사지, 신라왕경(S1E1) 등이 위치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중요 유적과 함께 신라왕경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에 의하여 동 유적은 본의 아닌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나 얼마 전까지 북천 하상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별다른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앞의 보고서.

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앞의 보고서.

9) 신라 제41대 현덕왕(재위기간 809~826)은 소성왕의 동생이며, 애장왕을 죽이고 즉위하였다. 재위 18년 만에 왕이 죽자 시호를 현덕이라 하고 천림사(泉林寺) 북쪽에 장사하였다.



도면 1.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위치도



사진 1.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전경



사진 2.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위성사진

Ⅲ. 調查經緯 및 經過

1. 調查經緯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2005년 ‘신라왕경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주시 구황동 883-44번지 일원의 소위 ‘분황사지구’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를 신청하였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위 신청지역의 제반여건과 문화재와의 조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허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문화재위원 등을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 이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전 발굴조사를 시행토록’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한 다음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문화재청 사적과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내용을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통보하고, 발굴관련 내용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에 통보하였다. 2006년 들어 경주시로부터 관련사항을 통보받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우리 연구소에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분황사지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이를 검토한 우리 연구소는 발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발굴조사계획서를 송부하였다.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경주시와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에 발굴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발굴조사과는 ‘경주 구황동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에 대한 발굴을 허가하였다.(허가 제2006-245호) 허가 내용을 통보받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우리 연구소에 발굴조사 시행을 의뢰하였으며, 우리 연구소는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 발굴조사를 시작하였다.

2. 調查經過

경주 구황동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은 천군로와 구황로가 만나는 교차로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형을 띠고 있다. 1970년대 초반 북천의 남안 제방을 북쪽으로 옮기면서 신설한 천군로 남쪽에 생성된 부지로 그 이전까지는 보문호에서 시작된 북천이 동북-서남쪽으로 진행되다가 서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곡류 지점의 하상이었다.

이를 근거로 하상퇴적층을 포함한 유적 내부의 전반적인 토층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다음, 원효로와의 경계부분에서는 구 제방 내지는 범람의 흔적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현지표가 주변 도로 높이와 비슷하게 형성된 동단 일부는 북천 하상 범위에서 벗어났을 가능성과 신라왕경 관련 유구의 존재 여부를 주시하기로 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조사전상태 사진촬영과 발굴기준목 설치작업을 선행하였다. 발굴기준목 설치 작업은 2006년 5월 8일부터 시작하여 동 18일까지 계속하였으며 그 뒤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설치하였다. 먼저 황룡사지, 신라왕경, 분황사, 구황동원지유적 등의 발굴조사에 공히 적용했던 ‘황룡사지 발굴좌표’를 유적 내부로 연장한 다음, 전역에 걸쳐 40m 간격의 격자형으로 구획하여 발굴기준목을 설치하였다. 이어 N230~N340, E360~E770 영역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20~40m의 간격을 두고 길이 20m, 너비 4m 규모의 조사갱을 남북 방향으로 길게 설정하였다. 각 조사갱은 모래와 자갈로 형성된 하상 퇴적층의 특성상 지반의 붕괴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준목 라인에서 동쪽으로 1m의 여유를 두고 설정하였다.(도면 2)

조사를 진행하면서 라인별로 남단, 북단, 중간지점 등 각각 3개소의 테스트피트를 설정하여 퇴적층의 존재와 그 퇴적 상태를 확인하고 경주분지에 공히 형성된 생토층까지 체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퇴적층, 점토대, 제방 석축, 뺨층 등이 노출되었으며, 이밖에 별다른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내용을 토대로 7월 12일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위원들은 신라왕경 등과 관련된 유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의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격을 구명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라왕경숲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7월 25일에는 모든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경주 구황동 신라왕경숲 조성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를 첨부하여 발굴완료신고를 필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은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처리는 관련부서(사적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통보하였다.

경주 구황동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의 실제 조사기간은 47일이 소요되었으며, (2006.05.08~07.25) 투입 인원은 연구원 204명, 작업인부 425명 등 모두 629명에 달한다. 발굴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윤근일(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현 기전문화재연구원장)

책임조사원 : 윤형원(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 연구실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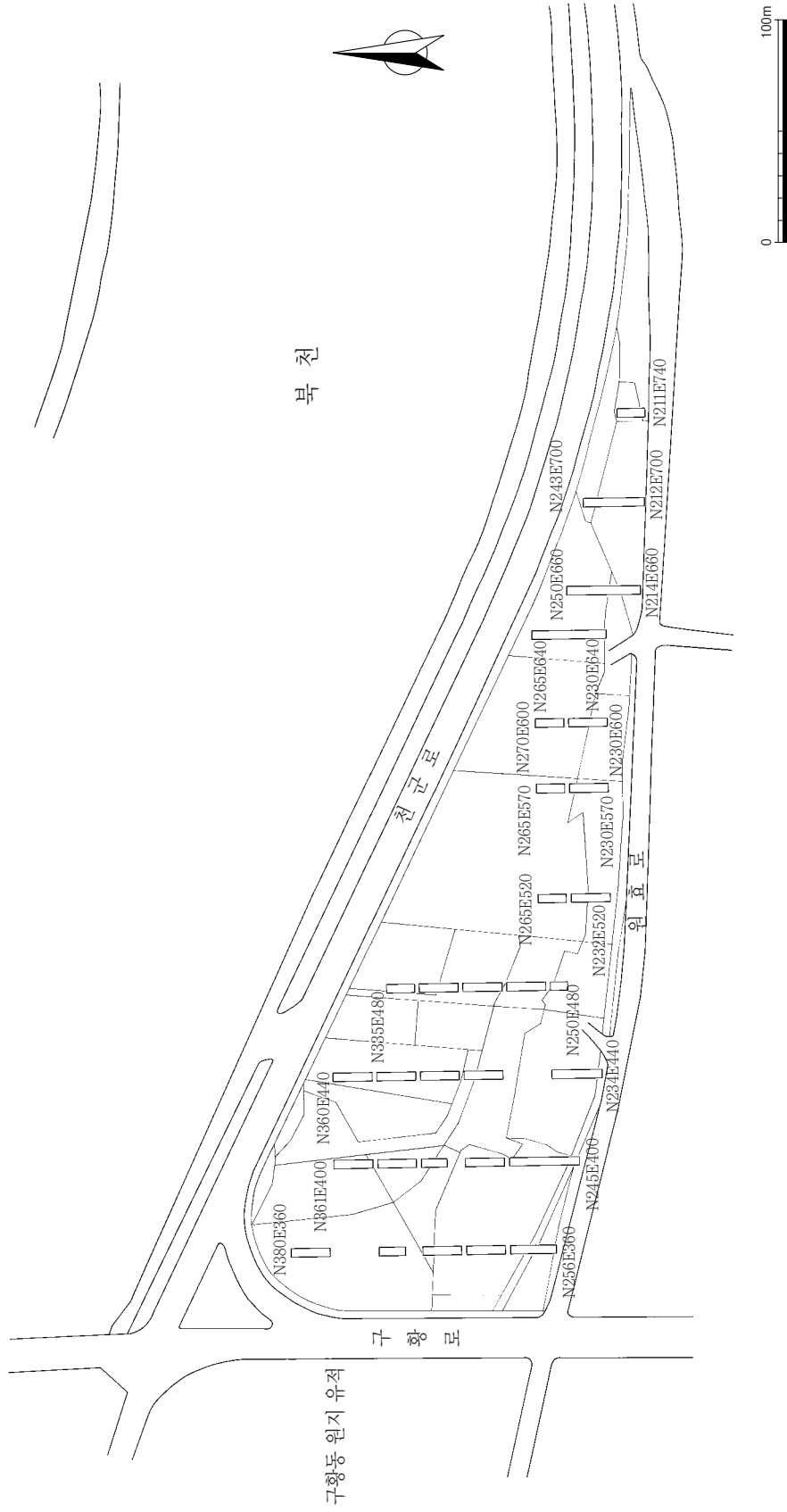
조 사 원 : 유흥식(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윤가량(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이명옥(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현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최민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정은주(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도면 2. 신라왕경술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조사갱 배치도

3. 諮問會議

조사내용을 토대로 개최한 자문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 소 : 신라왕경숲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현장

나. 일 시 : 2006. 7. 12(수) 11:00~15:00

다. 참석자

자문위원 김세기(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강봉원(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 교수)

김태중(전 경주문화원장)

조 사 단 윤근일(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윤형원(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유홍식(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외 4명

관 계 자 이광선(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

이채경(경주시)

라. 결과

(1) 유적의 성격 및 조사 방향

동 유적은 30여 년 전까지 북천의 하상이었으므로 신라왕경 등과 관련된 유구는 존재하지 않지만, 조사과정에서 노출된 하상퇴적층, 점토대, 제방 석축, 뿔층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격을 구명하여야 한다.

(2)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추진 여부

발굴조사 진행과는 별도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가 동 유적 내에서 추진 중인 신라왕경 숲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3. ① 조사내용 브리핑, ② 현장설명

IV. 遺構調査 内容

발굴조사 결과, 유적 전역에 걸쳐 대동소이하게 형성된 토층상태를 확인하였다. 대부분 표토층, 성토층, 하상퇴적층, 생토층 등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교란되거나 다소 복잡하게 형성된 층위도 관찰되었다.

유구는 유적 서남우에 해당하는 E360 라인과 E400 라인을 가로지르는 동서 방향의 점토대를 확인하였다. 유적 남단에서는 조밀하게 다져 축조한 북천의 제방도 일부 확인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말자국이 남아있는 빨층과 각종 쓰레기가 혼입된 최대 너비 7.4m의 빨층도 확인하였다.

조사개별 내용, 토층상태, 유구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調査坑別 現況

가. E360 라인

E360 라인은 유적 서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라인의 북반부는 잔디 및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다. N300 조사갱과 N326 조사갱 사이에는 동서 방향의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천군로 하부를 관통하여 북천으로 빠져나가게 설계되어 있다. 남쪽으로는 원효로에 접한 제방이 확인되었으며 N280E360 조사갱에서는 동서 방향의 점토대가 노출되었다.

지표면의 해발고도는 57.10~56.35m로 측정되어 북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조경수가 식재된 N320E360 조사갱부터는 다시 57.00m까지 높아진다. 중간 구역의 해발고도가 낮은 이유는 농수로 등으로 인하여 성토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토층의 양상은 주로 표토층(I)과 성토층(II), 하상퇴적층(III), 생토층(IV)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하상퇴적층은 남쪽으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생토층은 해발고도 55.54~55.28m로 측정되어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E360라인은 유적 전역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토층양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각 조사개별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N256E360(도면 3, 사진 4·5)

N256E360 조사갱은 조사지역 남단에 위치하며, 제방이 확인되어 길이를 24m로 연장하였다. 제방은 원효로 경계선을 따라 축조되어 1960년대까지 사용되었던 북천의 남안 제방이다. 하상퇴적층을 일부 굴광하고 30~60cm 크기의 넷돌을 사용하여 조밀하게 축조하였으며, 높이 1.9m, 너

비 2.3m의 규모로 남아 있다.

토층의 양상은 표토층(I)은 10~20cm 두께의 암갈색 사질부토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직하의 성토층(II)은 10~24cm 두께의 적갈색 점사질토층이다. 그 아래의 하상퇴적층(III)은 비교적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내부에서 1번 길이 40cm 크기의 방형 초석 1점이 출토되었다. III-①층은 두께 14~40cm의 흑갈색 사질토, III-②층은 두께 10~20cm의 황갈색+암갈색의 점질토, III-③층은 두께 22~40cm의 황갈색 사질토, III-④층은 두께 10~32cm의 자갈과 모래가 섞인 적갈색층, III-⑤층은 두께 6~12cm의 황갈색과 암갈색의 세사, III-⑥층은 두께 60~72cm의 적갈색 산화토로 모래+자갈+넷돌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생토층(IV)은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이 혼합된 경질 토층으로 확인되었으며, 25~40cm의 두께로 노출시켰다.

(2) N280E360(도면 4, 사진 6·7)

N280E360 조사갱에서는 동서 방향의 점토대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하여 동쪽으로 1m 가량 확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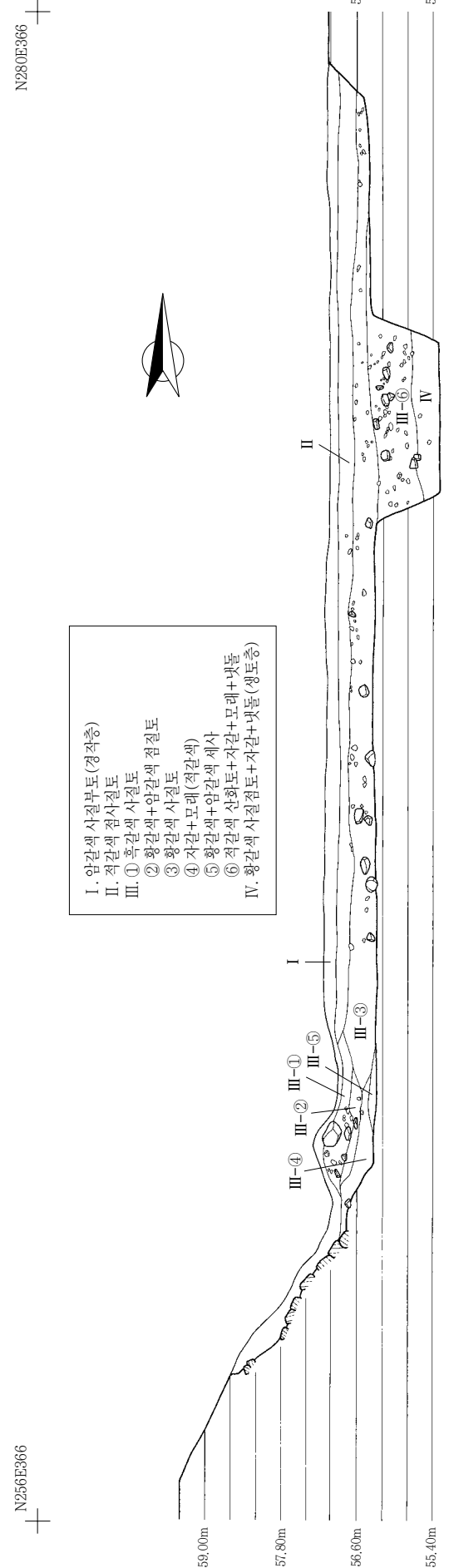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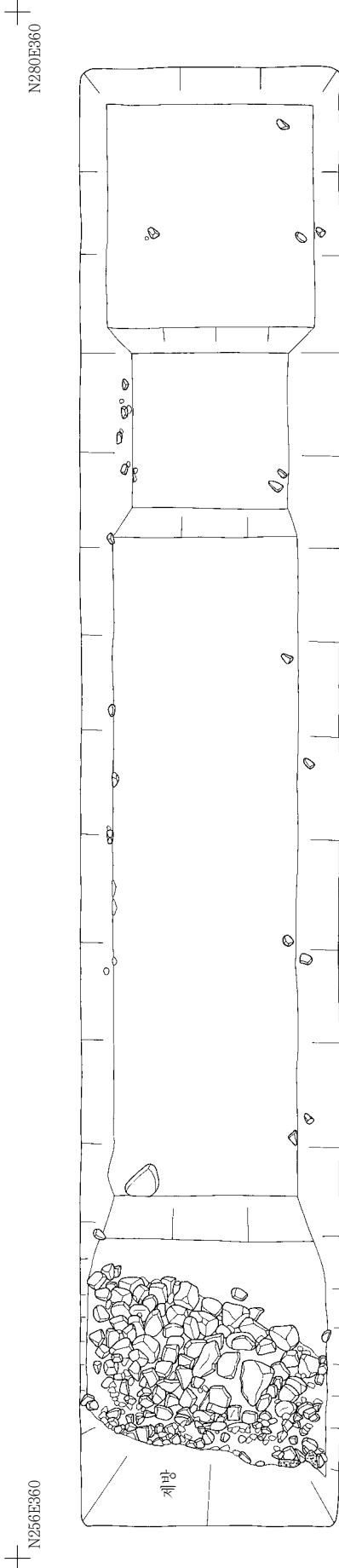
토층 양상은 표토층(I)이 8~25cm 두께의 암갈색 사질토로 형성되어 있으며, 성토층(II)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상퇴적층(III)은 5개 층으로 세분되어 다양하게 나타난다. III-①층은 두께 18~60cm의 밝은 황색+회색 잔자갈과 넷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토대가 만들어진 이후에 형성된 층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층은 점토대를 만들면서 절개한 층으로서 III-③~⑤층이 여기에 속하며, 길이 50cm, 너비 29cm, 두께 19cm 규모의 장대석 1점이 출토되었다. III-③층은 두께 74~92cm의 암갈색 자갈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III-④층은 두께 10~52cm의 황갈색 세사립으로 되어 있다. III-⑤층은 두께 66~86cm의 암갈색 모래+자갈+넷돌로 이루어져 점토대와 함께 생토층(IV)과 맞닿아 있다. 생토층(IV)은 존재만 확인하였다.

한편, III-②층은 황갈색과 적갈색 점질토로 채워진 점토대이다. 점토대는 모래와 자갈 등으로 형성된 하상 퇴적층을 거의 수직으로 절개하고 너비 1.0m, 높이 1.1~1.2m 규모의 단면 방향으로 점토를 채워 넣었다. 점토대의 바닥 쪽에는 부분적으로 회색 점토도 혼입되어 있으며, 밑바닥은 생토층에 맞닿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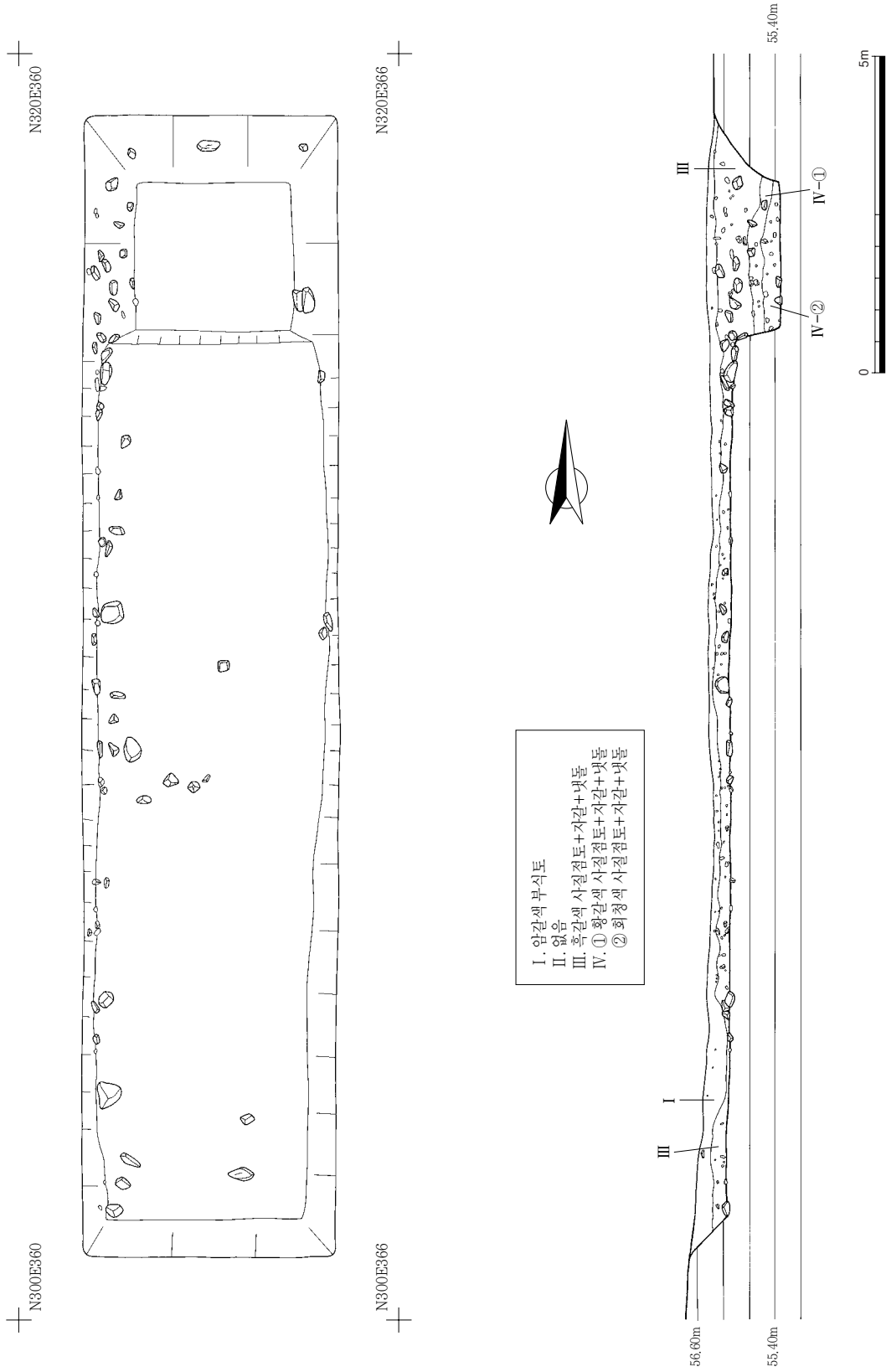
(3) N300E360(도면 5, 사진 8)

N300E360 조사갱에서는 성토층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갱 북쪽에는 동서 방향의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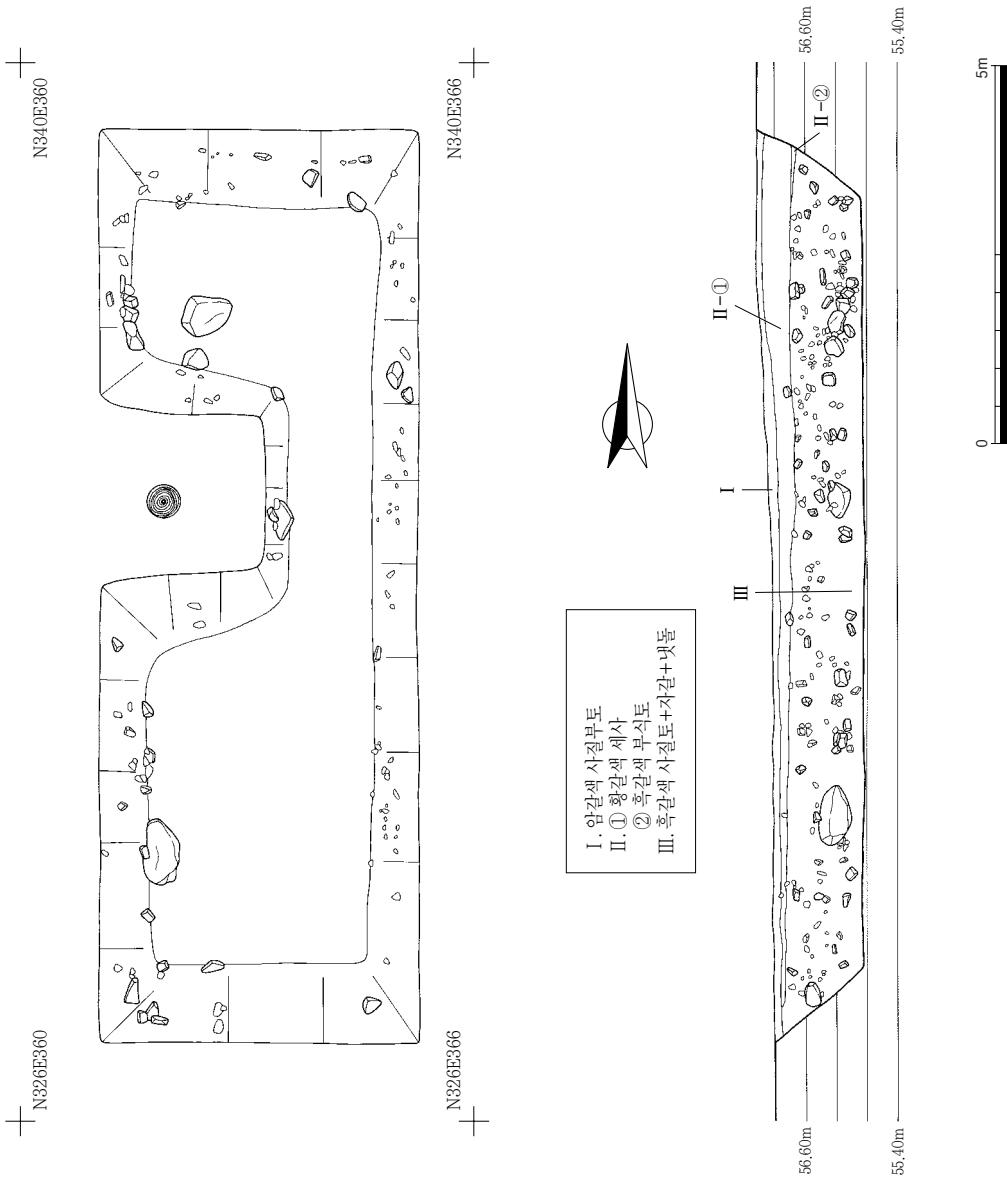
토층의 양상은 표토층(I)이 4~36cm 두께의 암갈색 사질부토로 형성되어 있으며, 직하에는 52~76cm 두께의 흑갈색 사질점토와 자갈+넷돌로 형성된 하상퇴적층(III)이 노출되었다. 최하층인 생토층(IV)은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로 이루어진 IV-①층과 회청색 사질점토+자갈+넷돌로 이루어진 IV-②층으로 양분된다. IV-①의 두께는 14~24cm로 측정되며, IV-②층은 최대 30cm 두께로 체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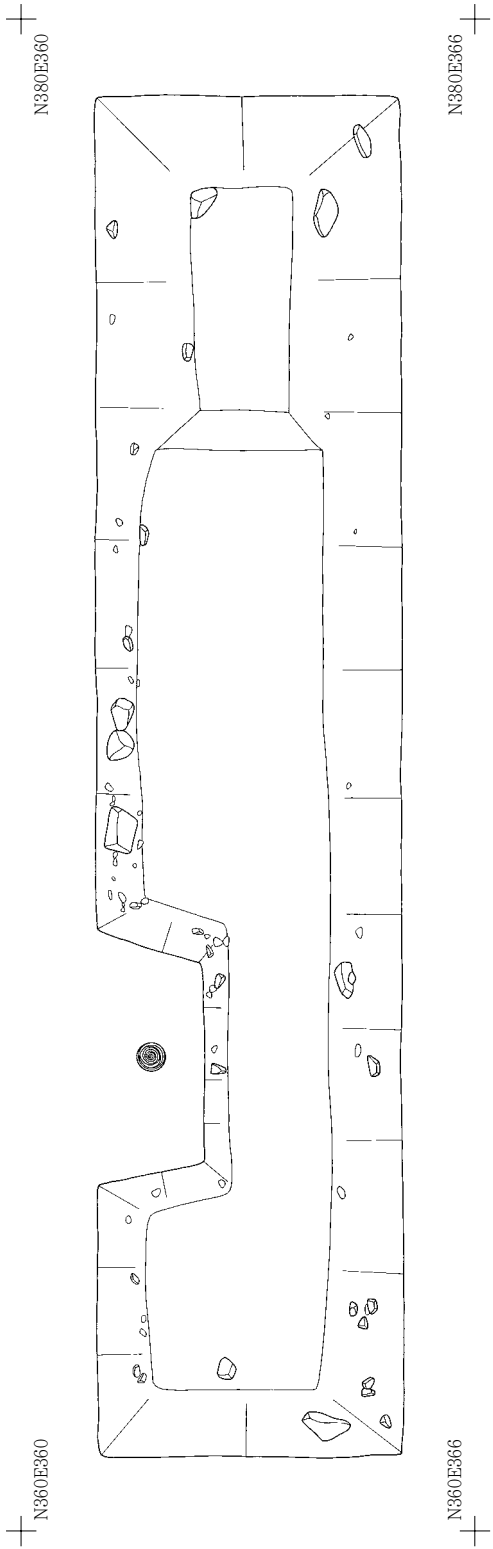
도면 3. N256E360 조사강 평면 및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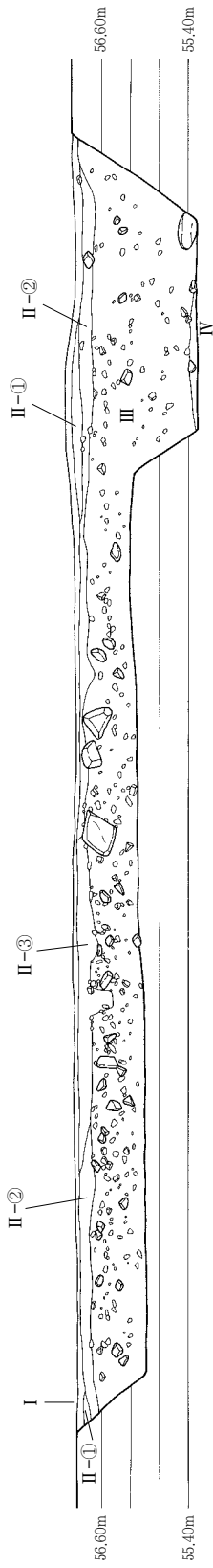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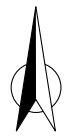
도면 5. N300E36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도면 6. N326E36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 I. 암갈색 사질부토
- II. ① 황갈색 세사
- ② 흑갈색 부식토
- ③ 황갈색 세사
- III. 흑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
- IV. 황갈색+암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



도면 7. N360E36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사진 4. ① N256E360 조사갱(북에서), ② N256E360 조사갱 서벽
③ N256E360 조사갱 토층 세부



사진 5. ① N256E360 조사갱 제방, ② N256E360 조사갱 제방 세부



사진 6. ① N280E360 조사갱 점토대, ② N280E360 조사갱 점토대 단면



사진 7. ① N280E360 점토대와 생토층 경계 세부
② N280E360 조사갱 점토대 직하 생토층 노출상태



사진 8. ① N300E360 조사갱 (북에서), ② N300E360 조사갱 서벽,
③ N300E360 조사갱 토층 세부



사진 9. ① N326E360 조사갱(북에서), ② N326E360 조사갱 서벽,
③ N326E360 조사갱 토층 세부



사진 10. ① N360E360 조사갱 전경(북에서), ② N360E360 조사갱 북벽,
③ N360E360 조사갱 토층 세부

(4) N326E360(도면 6, 사진 9)

N326E360 조사갱은 남쪽으로 물길이 지나고 있어 기준점을 4m 정도 북쪽으로 옮겨서 길이를 14m로 축소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조사갱 내부에 식재된 수목의 뿌리 부분은 조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토층 양상은 표토층(I)이 4~14cm 두께로 비교적 얇게 형성되어 있으며, 성토층(II)은 2개 층으로 세분된다. II-①층은 4~38cm 두께의 황갈색 고운 세사, II-②층은 2~6cm 두께의 흑갈색 부식토로 형성되어 있다. 하상퇴적층(III)은 90~100cm 두께의 모래+자갈로 확인되었으며, 생토층(IV)은 확인하지 않았다.

(5) N360E360(도면 7, 사진 10)

N360E360 조사갱 내부에도 1그룹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표토층(I)은 4~12cm 두께로 형성되어 있으며, 직하의 성토층(II)은 3개 층으로 세분된다. II-①층은 6~46cm 두께의 황갈색 세사, II-②층은 4~12cm 두께의 흑갈색 부식토, II-③층은 5~24cm 두께의 황갈색 세사로 각각 형성되어 있다. 그 아래의 하상퇴적층(III)은 132~144cm 두께의 모래+자갈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생토층(IV)은 황갈색+암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10cm 안팎의 두께로 노출시켰다.

나. E400 라인

E400 라인 역시 원효로에 접한 남쪽에서 북천의 제방이 확인되었으며 N400E400 조사갱에서는 E360 라인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동서 방향의 점토대가 노출되었다. N280E400과 N300E400 조사갱 사이로는 E360 라인에서 연결되는 농수로가 지나가고 있다. 해발고도는 57.60m에서 56.00m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급격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하상퇴적층은 거의 평평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N343 지점에서 일부 사라지기도 하였으나 N347 지점에서 다시 나타난다. 하상퇴적층의 양상은 중간 지점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남쪽과 북쪽에서는 교란이 심한 상태로 노출되었다. 생토층 상면도 해발고도 56.20m로 시작해서 북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낮아지다가 N352 지점에서는 급격히 낮아진다.

(1) N245E400(도면 8, 사진 11~14)

N245E400 조사갱에는 원효로 경계선을 따라 북천의 구 제방이 남단에서 노출되었다. 조사갱은 전체 길이 35m로 설정하였으며, 점토대가 노출된 부분은 조사갱의 너비를 1m 확장하였다.

표토층은 최근까지 수전으로 경작한 약 30cm 두께의 흑갈색 사질점토층(I-②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제방과의 경계 지점 일부에서는 20~30cm 두께의 황갈색 모래+자갈층(I-①층)이 노출되었다. 성토층(II)은 제방의 경계지점 일부에서 나타나는데, II-①층은 20~40cm 두께의 암갈색과 황갈색의 점질토+사질토+자갈층이 쓰레기와 혼입되어 있으며, II-②층은 20~30cm 두께의 암갈색 점질토+자갈+쓰레기가 혼입되어 있다. 성토층 직하 일부에서는 농수로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가' 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20~40cm 두께의 암회색 자갈+넷돌+굵은 모래가 혼합되어 있다. 성토층 직하에서는 하상퇴적층(III)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III-①층은 10~50cm 두께의 명황색과 회색의 사질토+자갈+넷돌이 혼합되어 있으며, 점토대가 축조된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III-③층은 10~40cm 두께의 황색과 회색의 고운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III-④층은 10~40cm 두께의 적갈색과 회색의 점사질토+자갈+넷돌이 혼합되어 있다. III-⑤층은 10~45cm 두께의 황갈색과 회색의 점질토+자갈+넷돌, III-⑥층은 10~40cm 두께의 적갈색 모래+자갈+넷돌, III-⑦층은 적갈색 모래+자갈+넷돌로 각각 형성되어 있다. 생토층(IV)은 황갈색 점사질토+넷돌로 형성되어 있으며, 80cm 두께로 노출시켰다.

앞의 설명에서 제외된 III-②층은 점토대이다. E360 라인과 마찬가지로 모래와 자갈 등으로 형성된 하상퇴적층을 거의 수직으로 절개하고 적갈색, 암갈색, 회색이 혼합된 점질토를 채워 넣었다. 횡단면의 규모는 너비 1.0m, 높이 1.1~1.2m이며, 여기서는 생토층 윗면을 10cm 가량 굴광하고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N280E400(도면 9, 사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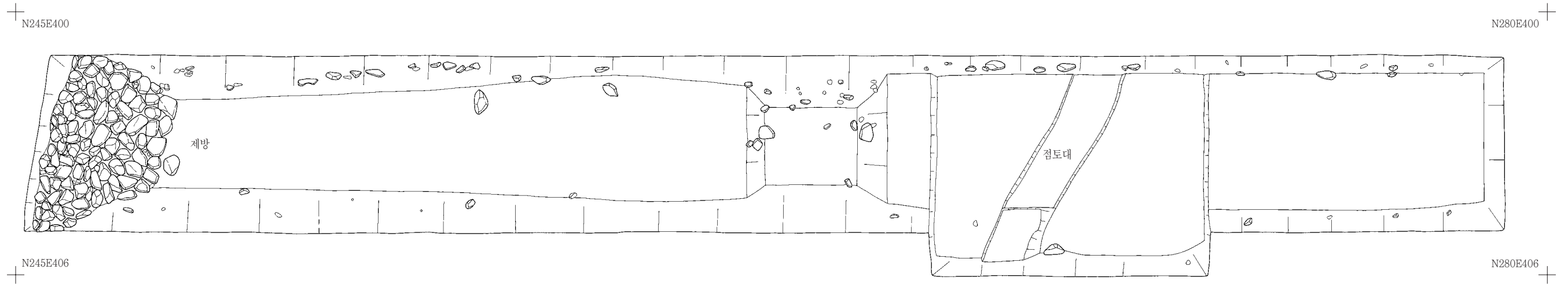
N280E400 조사갱의 토층 양상은 다음과 같다. 10~15cm 두께의 암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표토층(I)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성토층(II)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상퇴적층(III)은 2개의 층위로 나뉘는데, III-①층은 46~60cm 두께의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 III-②층은 8~20cm 두께의 암갈색 잔자갈로 각각 형성되어 있다. 생토층(IV)은 역시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110cm의 두께로 노출시켰다.

(3) N306E400(도면 10, 사진 16-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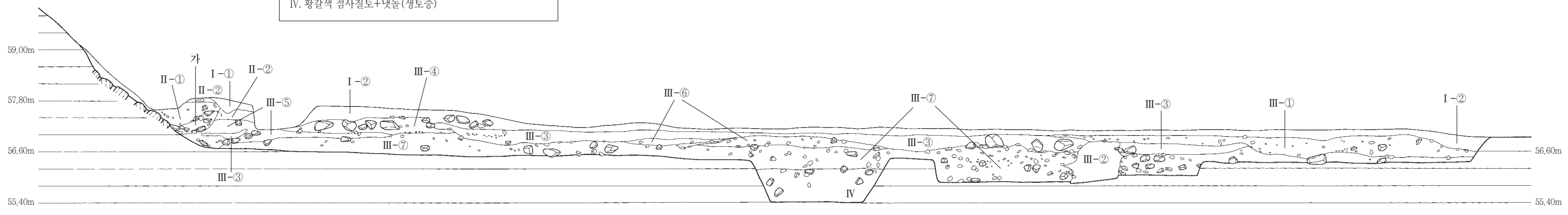
N306E400 조사갱은 남쪽 일부가 배수로에 포함된 관계로 전체 길이가 14m로 줄어들었다. 표토층은 확인되지 않고 최상층에 바로 성토층(II)이 노출되어 있는데, 비교적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II-①층은 10~48cm 두께의 황갈색 점질토, II-②층은 12~26cm 두께의 흑갈색 부식토, II-③층은 12~24cm 두께의 적갈색 세사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 하상퇴적층(III)은 18~42cm 두께의 흑갈색 사질토+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다.

(4) N320E400(도면 11, 사진 16-③~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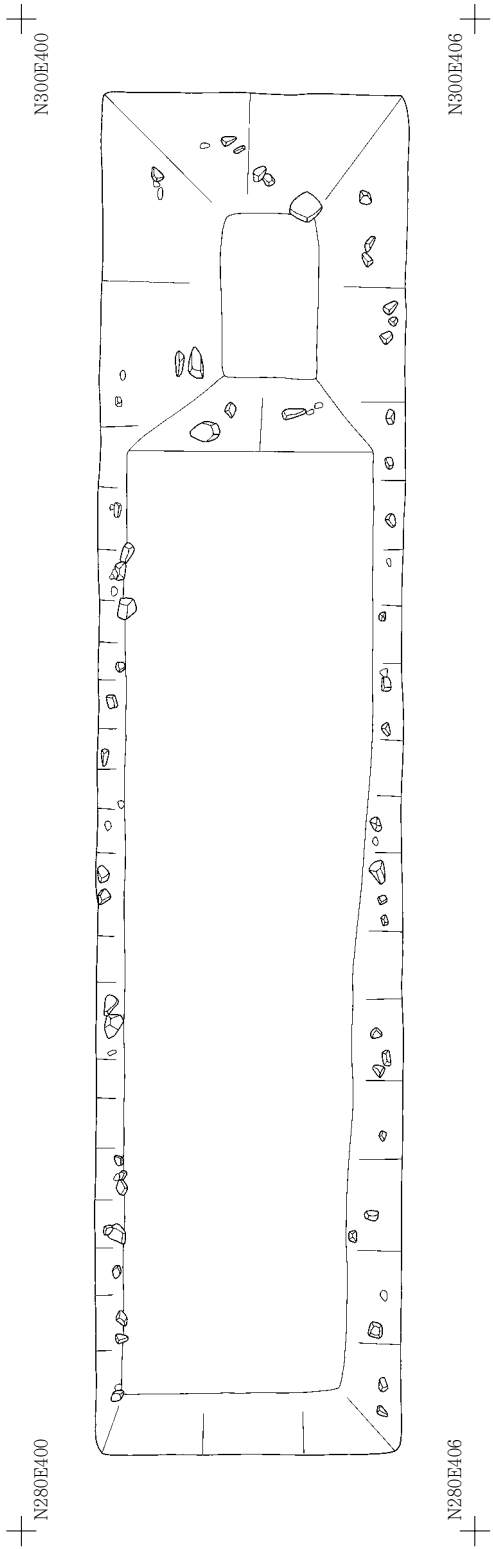
N320E400 조사갱의 토층 양상은 다음과 같다. 최상층에 10~20cm 두께의 암갈색 사질점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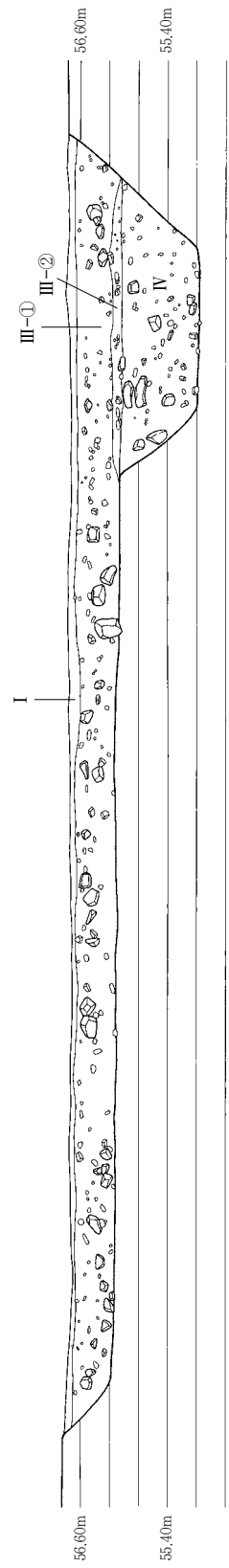
- I. ① 황갈색 모래+자갈
 ② 흑갈색 사질점토(경작)
- II. ① 암갈색+황갈색의 점질토+사질(부식토)+쓰레기+자갈
 ② 암갈색 점질토+자갈+쓰레기
 가. 암회색 자갈+넷돌+물기많은 굵은 모래
- III. ① 밝은황색+회색 사질토+자갈+넷돌
 ② 적갈색+암갈색+회색 점질토(점토대)
 ③ 황색+회색의 고운모래
 ④ 적갈색 점질의 모래+자갈+넷돌
 ⑤ 황갈색+회색 점질토+넷돌+자갈
 ⑥ 적갈색 산화층 모래+자갈+넷돌
 ⑦ 적갈색 모래+자갈+넷돌
- IV. 황갈색 점사질토+넷돌(생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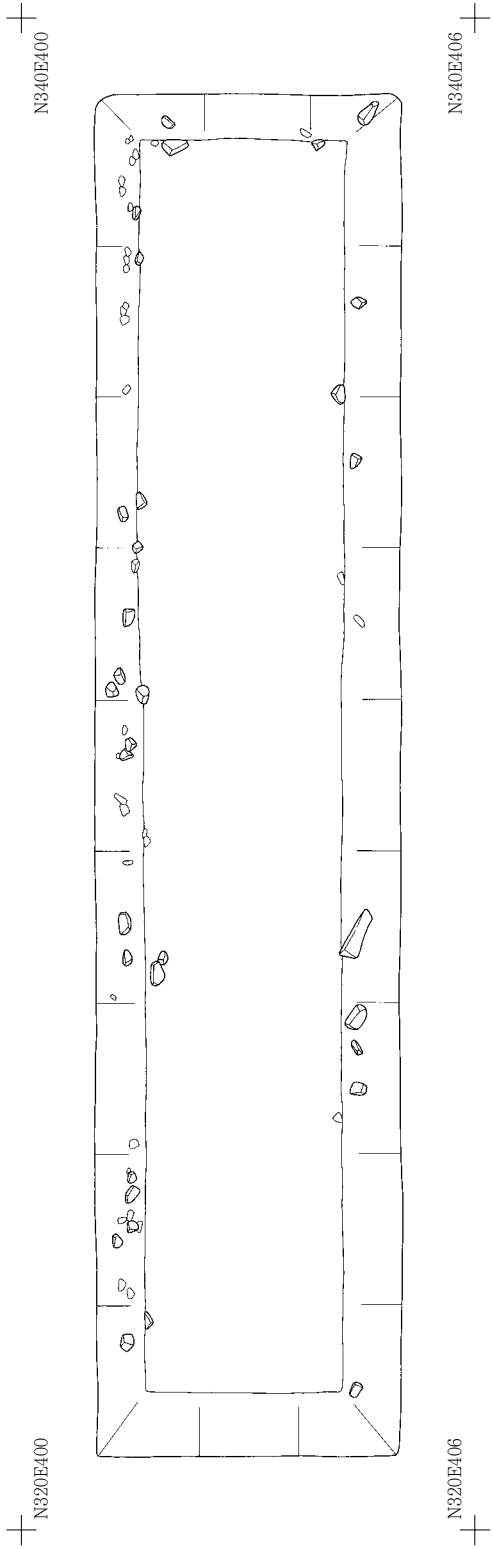
도면 8. N245E40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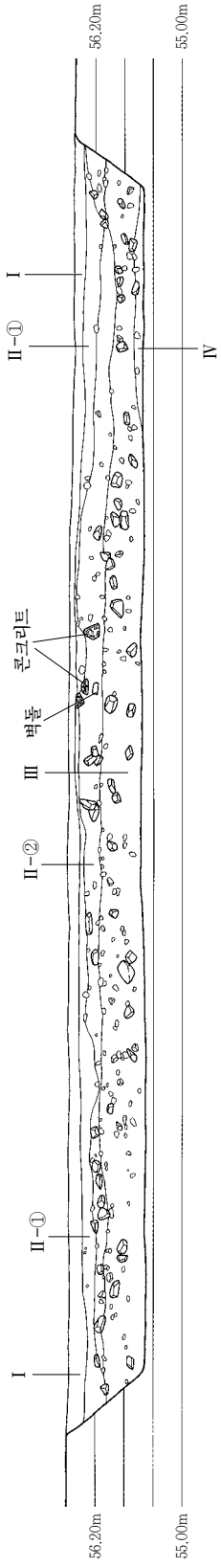
- I. 암갈색 사질점토
- II. 없음
- III. ① 황갈색 사질토+자갈+멧돌
② 암갈색 자갈+잔자갈층
- IV. 황갈색 사질점토 자갈+멧돌 (생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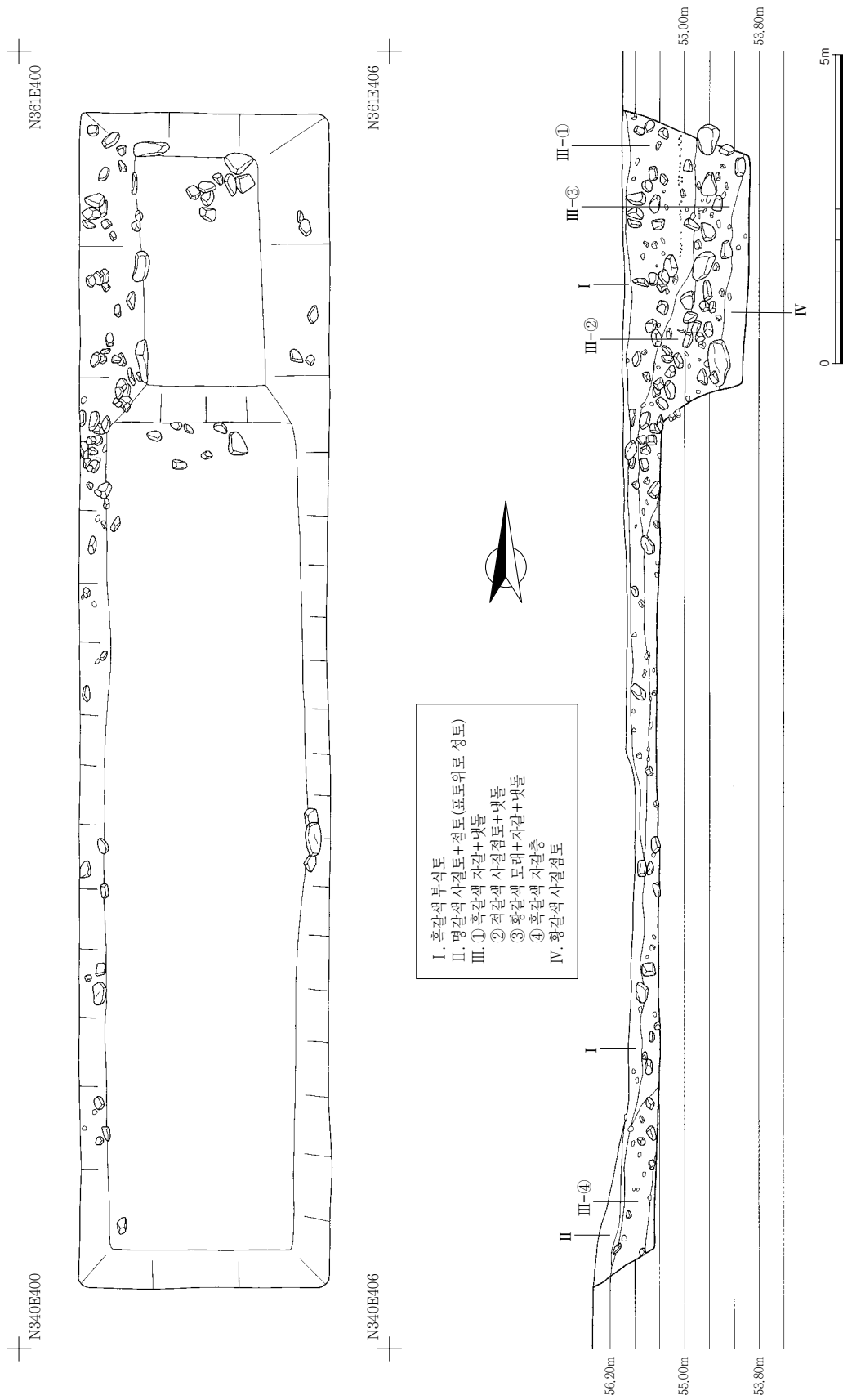
도면 9. N280E40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 I. 암갈색 사질점토
- II. ① 황갈색 점질토
- ② 혼갈색 사질점토+내물 (비닐+콘크리트)
- III. 황갈색 모래+자갈+빗물
- IV. 황갈색 사질점토



도면 11. N320E40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도면 12. N340E40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사진 11. ① E400 라인 전경(북에서), ② N245E400 조사갱(북에서),
 ③ N245E400 조사갱 토층 세부



사진 12. ① N245E400 조사갱 제방, ② N245E400 조사갱 제방 세부



사진 13. ① N245E400 조사갱 점토대, ② N245E400 조사갱 점토대 단면



사진 14. ① N245E400 조사갱 점토대 세부, ② N245E400 조사갱 점토대 직하 생토층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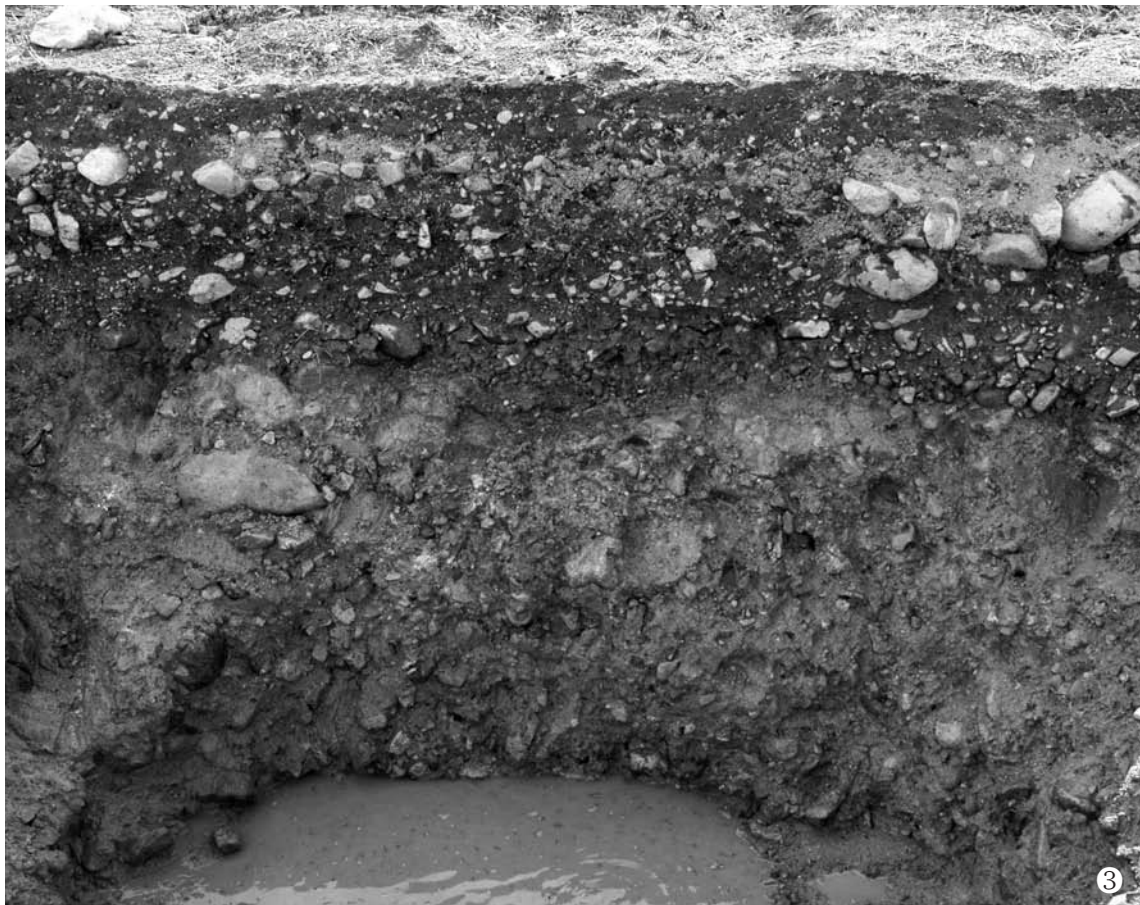


사진 15. ① N280E400 조사갱(남에서), ② N280E400 조사갱 서벽,
③ N280E400 조사갱 토층 세부



사진 16. ① N306E400 조사갱(북에서), ② N306E400 조사갱 토층,
③ N320E400 조사갱(남에서), ④ N320E400 조사갱 토층



사진 17. ① N340E400 조사갱(북에서), ② N340E400 하상퇴적층과 생토층 노출 상태,
 ③ N340E400 조사갱 토층 세부

형성된 표토층(I)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성토층(II)이 형성되어 있다. II-①층은 2~28cm 두께의 황갈색 점질토, II-②층은 12~35cm 두께의 흑갈색 사질점토+넷돌층에 비닐, 콘크리트 등의 쓰레기가 혼입되어 있다. 하상퇴적층(III)은 28~48cm 두께의 황갈색 모래+자갈+넷돌로 이루어져 있다. 생토층(IV)은 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서 10cm 두께로 노출시켰다.

(5) N340E400(도면 12, 사진 17)

N340E400 조사갱은 E400 라인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천군로와 유적 내에서 빠져 나가는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표토층(I)에는 4~20cm 두께의 흑갈색 부식토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성토층(II)은 보이지 않는다. 표토층의 밑에는 하상퇴적층(III)과 생토층(IV)이 차례로 나타난다. 조사갱 남단에서 북으로 약 3m되는 지점까지 하상퇴적층이 형성되었다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생토층이 나타난다. 북으로 약 4m되는 지점에서는 다시 생토층 위에 하상퇴적층이 얇게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북으로 약 6m되는 지점에서는 생토층 높이가 급격히 떨어지며 여기 두껍게 채워진 하상퇴적층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III-①층은 36~104cm 두께의 흑갈색 자갈+넷돌, III-②층은 10~64cm 두께의 적갈색 사질점토+넷돌, III-③층은 48~76cm 두께의 황갈색 모래+자갈+넷돌, III-④층은 40~48cm 두께의 흑갈색 자갈층으로 각각 형성되어 있다. 생토층(IV)은 황갈색 사질점토로 형성되어 있으며, 최대 35cm 두께로 노출시켰다.

다. E440 라인

E440 라인에서도 남단의 원효로에 접한 부분에서 제방이 확인되었으며, 후대에 축조한 축대도 노출되었다. 표토층(I)의 해발고도는 58.20m에서 56.00m로 북으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생토층(IV)의 해발고도는 제방 경계선 쪽에서는 56.94m로 측정되었으나 유적 북단에서는 53.90m로 측정됨에 따라 북천의 가장자리와 중심부의 생토층 고저차가 약 3m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상퇴적층(III)은 비교적 두껍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홍수와 범람에 의한 교란층이 다수 관찰되며, 운동화밀창을 비롯한 최근의 물품이 다수 혼입되어 있다.

(1) N234E440(도면 13, 사진 18·19)

N234E440 조사갱 역시 원효로를 따라 북천 제방이 남아 있다. 또한, 남단에서 북쪽으로 약 26m되는 지점에는 높이 70cm 정도로 쌓은 축대가 노출되었다. 조사갱의 길이는 27m로 설정하였다.

표토층(I)은 30~60cm 두께의 암갈색 점질토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성토층(II)은 3개의 층위로 세분되어 있는데, 축대를 쌓은 부분은 비교적 두껍게 나타난다. II-①층은 2~4cm 두께의 적

갈색 산화층, II-②층은 2~35cm 두께의 적갈색+명적갈색 점질토, II-③층은 10~70cm 두께의 적갈색 사질점토가 각각 확인되었다. 하상퇴적층(III)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III-①층은 25~50cm 두께의 황갈색 세사+자갈, III-②층은 10~85cm 두께의 적갈색 모래+자갈+넷돌, III-③층은 64~76cm 두께의 갈색 모래+자갈+넷돌, III-④층은 2~35cm 두께의 흑색 점질토, 마지막 III-⑤층은 12~22cm 두께의 암갈색 세사로 각각 형성되어 있다. 한편, 이 하상퇴적층에서는 1번 길이 60cm 안팎의 방형 초석 1점이 출토되었다. 생토층(IV)은 황갈색과 회청색의 사질점토+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으며, 최대 56cm 두께로 노출시켰다.

(2) N280E440(도면 14, 사진 20)

N280E440 조사갱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토층 양상을 보인다. 표토층(I)은 4~24cm 두께의 암갈색 점질토로 형성되어 있으며, 성토층(II)은 황갈색+암갈색 점질토와 소량의 자갈이 4~30cm의 두께로 형성되어 있다. 하상퇴적층(III)이 2개 층위로 나타나는데, III-①층은 흑회색의 모래+자갈+넷돌이 8~20cm 두께로 나타나며, III-②층은 흑갈색의 모래+자갈+넷돌이 24~38cm 두께로 나타난다. 생토층(IV)은 황갈색의 사질점토+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다.

(3) N300E440(도면 15, 사진 21-①~②)

N300E440 조사갱은 왕경숲 조성 안내판이 설치된 부분을 제외하고 조사하였다. 표토층(I)에는 26cm 두께의 암갈색 점질토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성토층(II)은 2개 층위로 나뉜다. II-①층은 6~26cm 두께의 황갈색 점질토와 자갈층이 혼합되어 있다. II-②층은 자갈과 넷돌을 한꺼번에 60cm 두께로 쏟아 부었으며, 조사갱 남쪽에 치우쳐져 하상퇴적층과 거의 직각으로 맞닿아 있다. 그 옆으로 하상퇴적층(III)이 형성되어 있는데 흑갈색의 모래+자갈+넷돌이 비닐, 형질 등을 포함한 채 20~24cm 두께로 형성되어 있다. 하상퇴적층에서 이러한 현대 생활용품들이 나타나는 걸로 보아 최근의 홍수에 의하여 교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생토층(IV)은 확인하지 않았다.

(4) N320E440(도면 16, 사진 21-③~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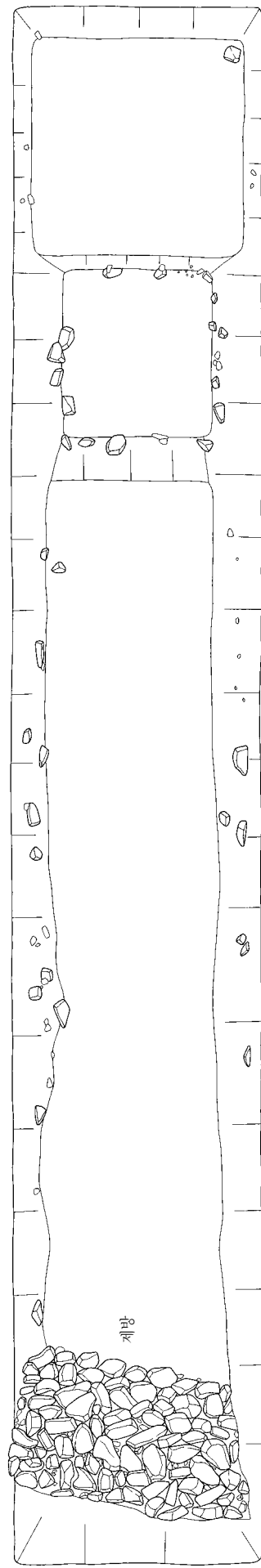
N320E440 조사갱은 비교적 안정적인 토층 양상을 보인다. 표토층(I)은 암갈색 점질토가 4~26cm 두께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성토층(II)은 황갈색 점질토+자갈이 16~40cm 두께로 나타난다. 하상퇴적층(III) 역시 2개 층위로 나뉘는데, III-①층은 16~58cm 두께의 적갈색 자갈+넷돌, III-②층은 4~54cm 두께의 흑갈색 사질점토+자갈로 각각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도 생토층(IV)은 확인하지 않았다.

(5) N340E440(도면 17, 사진 21-⑤~⑥·22)

N340E440 조사갱은 E440 라인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표토층(I)은 6~15cm 두께로 고

N234E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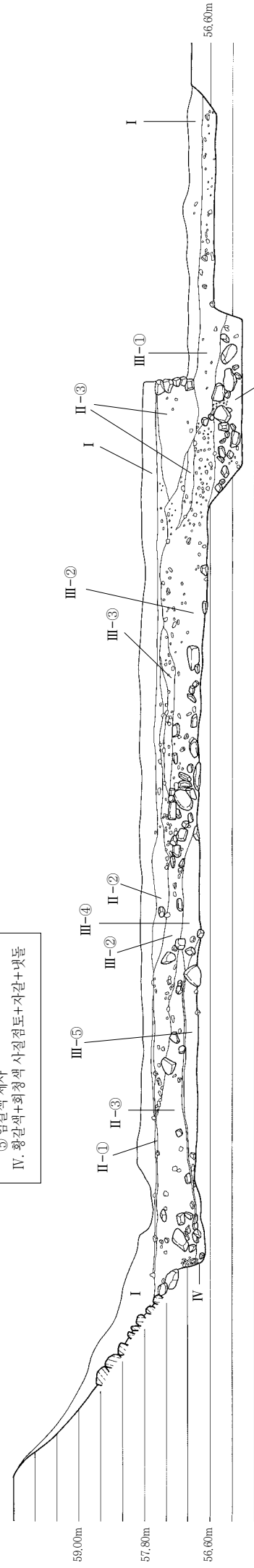
N261E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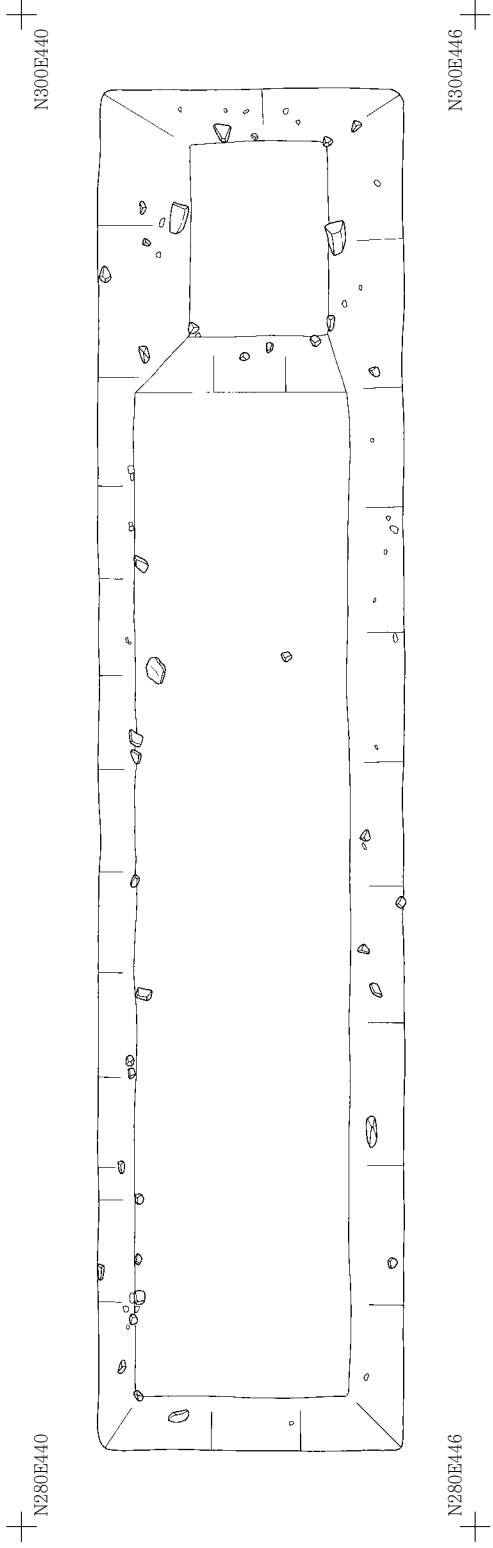
N234E446

N261E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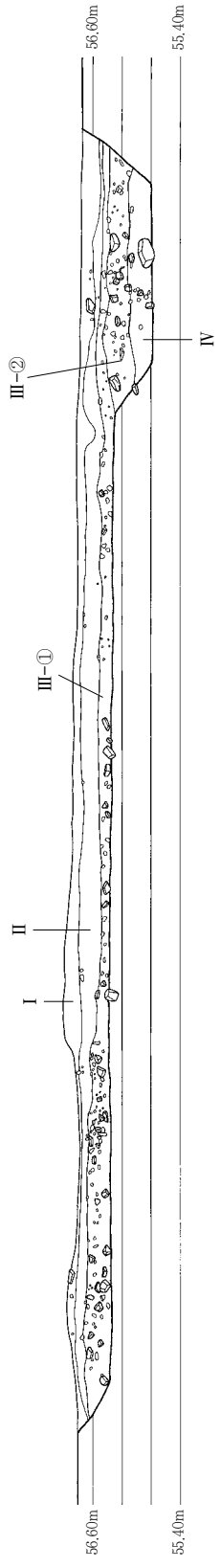
- I. 암갈색 점질토
- II. ① 적갈색산화층
- ② 적갈색+명갈색 점질토
- ③ 적갈색 사질점토
- III. ① 황갈색 세사+자갈
- ② 적갈색 모래+자갈+넷돌
- ③ 갈색 모래+자갈+넷돌
- ④ 흑색 점질토
- ⑤ 암갈색 세사
- IV. 황갈색+회청색 사질점토+자갈+넷돌



도면 13. N234E44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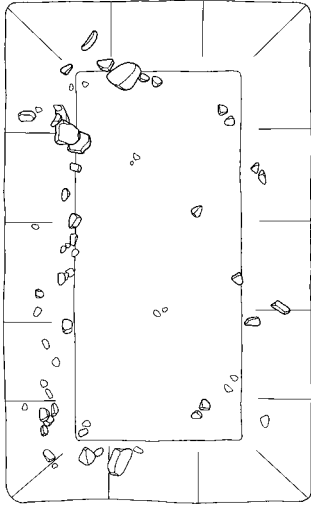


- I. 암갈색 점질토
- II. 황갈색 + 암갈색 점질토 + 자갈
- III. ① 흑회색 모래 + 자갈 + 냇물
② 흑갈색 모래 + 자갈 + 냇물
- IV. 황갈색 사질점토 + 자갈 + 냇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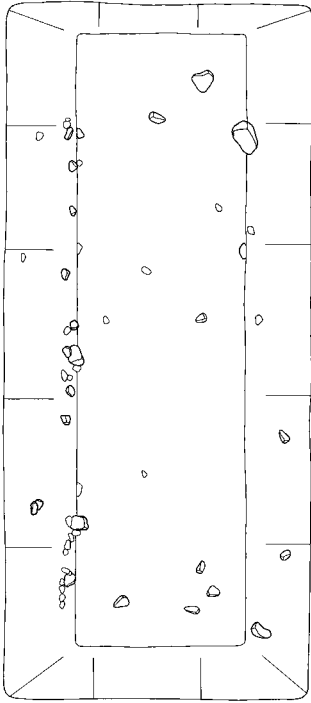


도면 14. N280E44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N320E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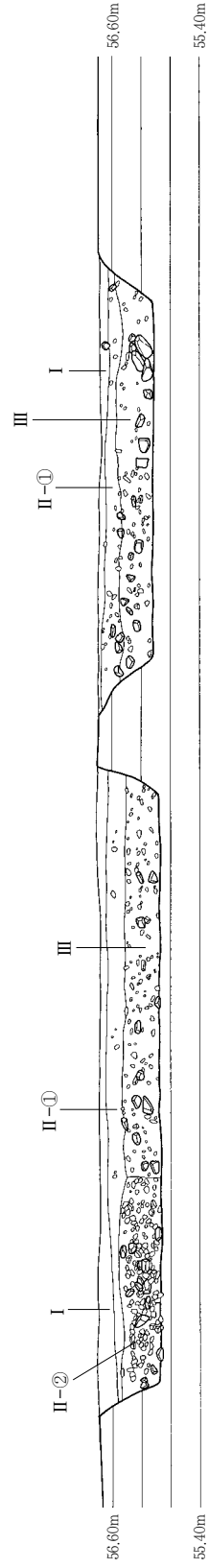
N300E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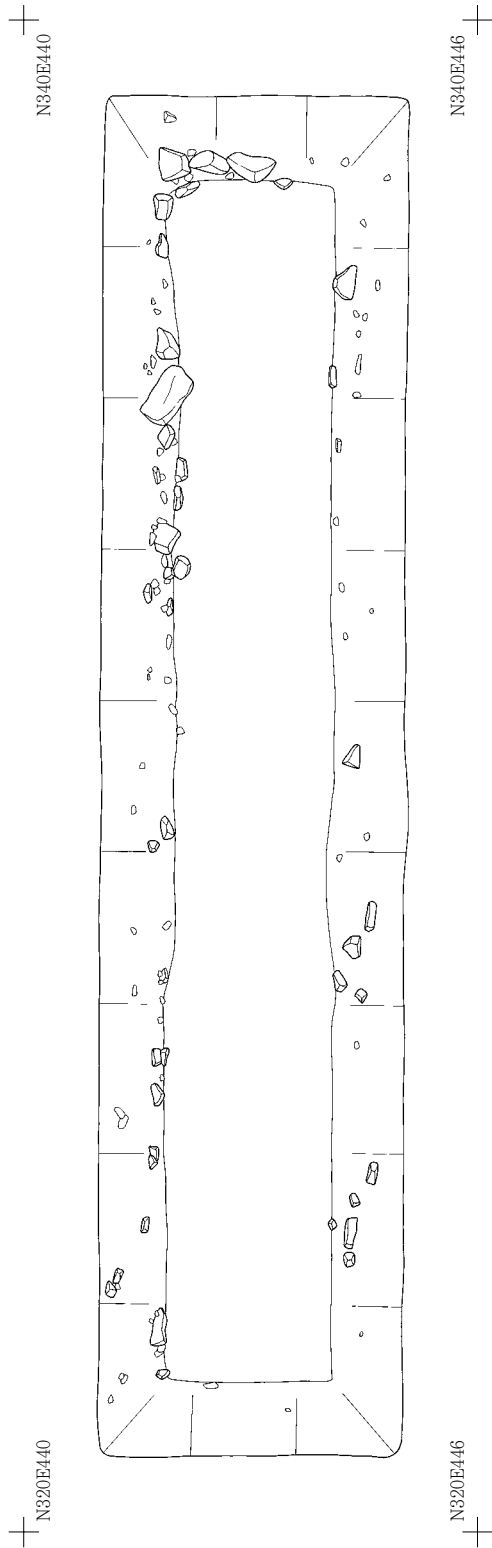
N320E446

N300E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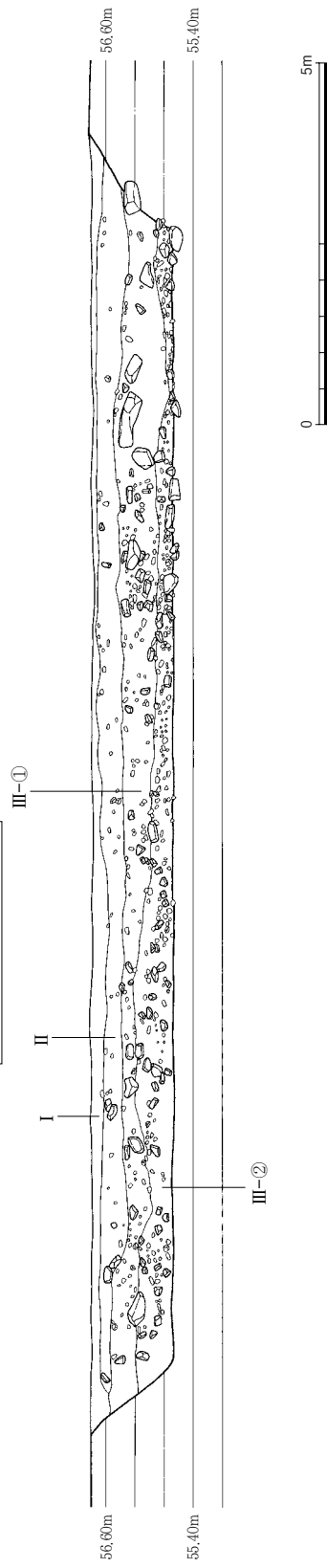
- I. 암갈색 점질토
- II. ① 황갈색 점질토+자갈
- ② 자갈+닛물(배림층)
- III. 흑갈색 모래+자갈+닛물(비닐, 형질포함)



도면 15. N300E44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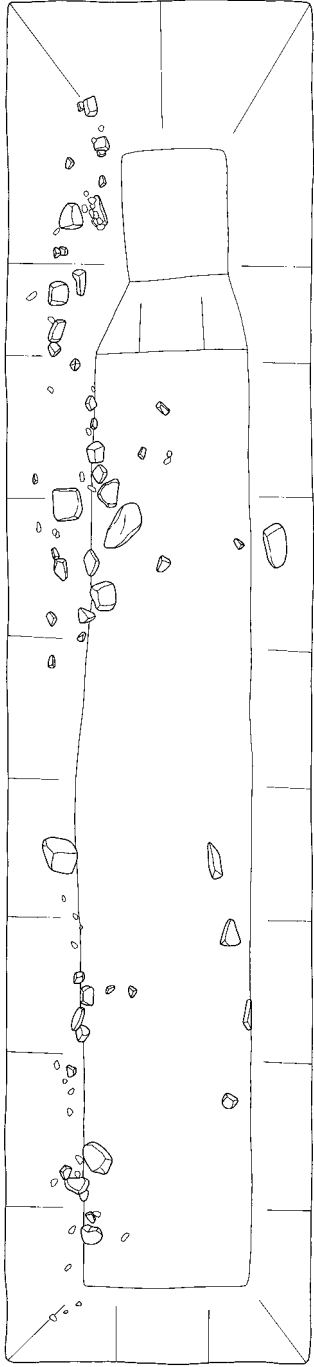
I. 암갈색 점질토
 II. 황갈색 점질토+자갈
 III. ① 적갈색 자갈+넷돌
 ② 흑갈색 사질점토+자갈



도면 16. N320E440 조사강 평면 및 토층도

N360E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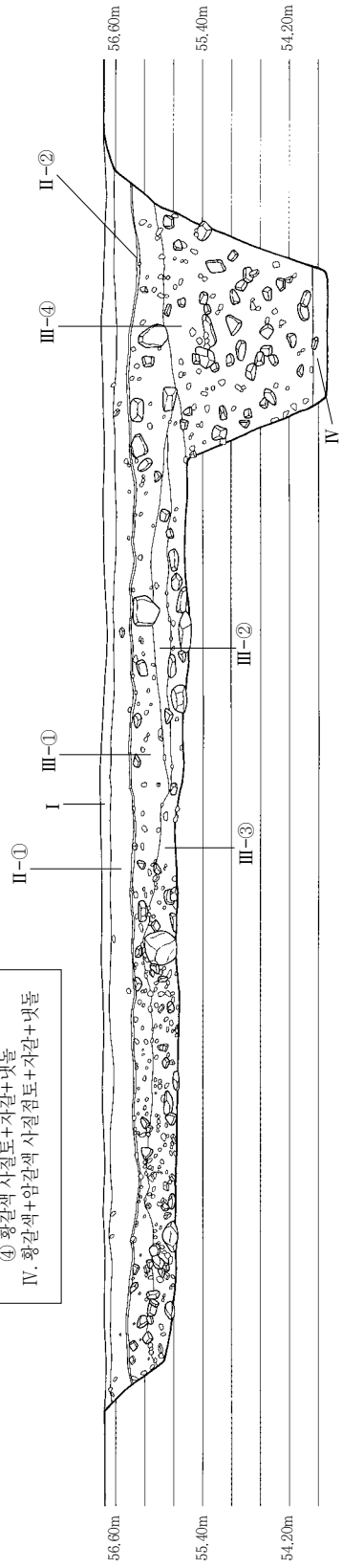
N340E440



N360E446

N340E446

- I. 암갈색 점질토
- II. ① 황갈색+암갈색 점질토
② 회색점토
- III. ① 흑갈색 사질토+자갈(운동화밑창)
② 적갈색 세사
③ 흑갈색 사질토+자갈+멧돌
④ 황갈색 사질토+자갈+멧돌
- IV. 황갈색+암갈색 사질점토+자갈+멧돌



도면 17. N340E44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사진 18. ① E440 라인 전경(북에서), ② N234E440 조사갱(북에서),
 ③ N234E440 조사갱 서벽 축대와 토층 세부



사진 19. ① N234E440 조사갱 제방, ② N234E440 조사갱 제방 하층



사진 20. ① N280E440 조사갱(북에서), ② N280E440 조사갱 생토층 노출상태,
③ N280E440 조사갱 토층 세부



사진 21. ① N300E440 조사갱(북에서), ② N300E440 조사갱 잡석 노출상태,
 ③ N320E440 조사갱(남에서), ④ N320E440 조사갱 토층,
 ⑤ N340E440 조사갱(북에서), ⑥ N340E440 조사갱 서벽 토층



사진 22. ① N340E440 조사갱 토층 세부, ② N340E440 조사갱 운동화밑창 노출상태,
③ N340E440 조사갱 각종 쓰레기 노출상태

르게 분포되어 있다. 성토층(Ⅱ) 역시 2개 층위로 나뉜다. Ⅱ-①층은 두께 20~40cm의 황갈색+암갈색 점질토, Ⅱ-②층은 2cm 두께의 회색 점토가 분포되어 있다. 하상퇴적층(Ⅲ)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Ⅲ-①층은 32~64cm 두께의 흑갈색 사질토+자갈층에 운동화밀창이 혼입되어 있었으며, Ⅲ-②층은 2~24cm 두께의 적갈색 세사, Ⅲ-③층은 14~44cm 두께의 흑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과 외편, 마지막 Ⅲ-④층은 180~216cm 두께의 황갈색 사질토+자갈+넷돌로 각각 형성되어 있다. 최하층에는 황갈색과 암갈색의 사질점토+자갈+넷돌이 형성된 생토층(Ⅳ)이 나타나는데, 20cm 두께로 노출시켰다.

라. E480 라인

E480 라인의 표토층(Ⅰ) 해발고도는 57.44m로서 중간 부분에서 조금 낮아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평한 편이다. 하지만 생토층(Ⅳ)은 제방 경계선 쪽에서는 56.02m 정도로 다소 낮게 나타나다가 N269지점에서 56.58m로 다시 높아진다. 이 생토층은 N288지점에서 56.70m에서 56.20m으로 0.5m 가량 떨어지기 시작하여 강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유적 북단부에서는 54.65m까지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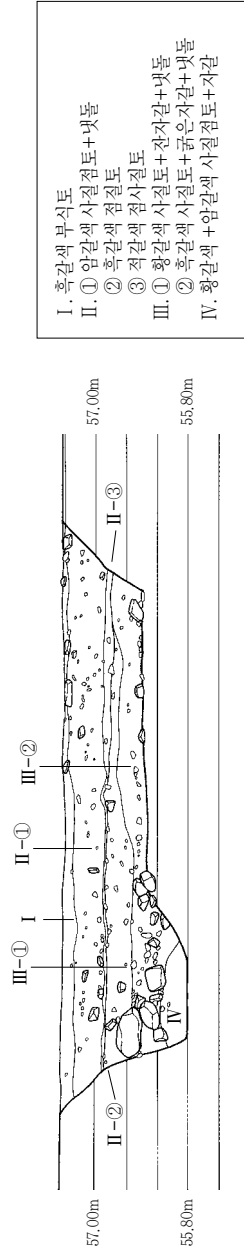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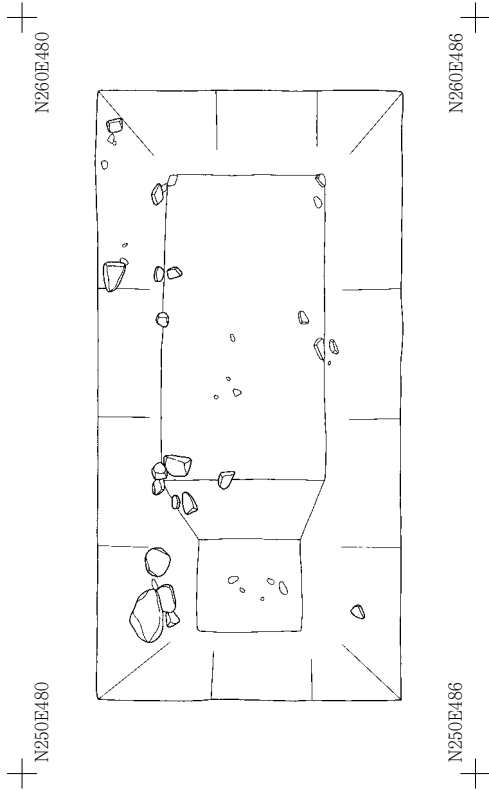
(1) N250E480(도면 18, 사진 23·24-①~②)

N250E480 조사갱은 물웅덩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길이를 10m로 축소하였다. 조사갱 동남우의 하상퇴적층에는 용도불명의 쇠파이프가 가로질러 놓여있다.

표토층(Ⅰ)은 흑갈색 부식토가 2~18cm 두께로 분포되어 있으며, 성토층(Ⅱ)은 3개 층위로 세분된다. Ⅱ-①층은 36~50cm 두께의 암갈색 사질점토+넷돌, Ⅱ-②층은 2cm 두께의 흑갈색 점질토, Ⅱ-③층은 6~14cm 두께의 적갈색 점사질토로 각각 형성되어 있다. 하상퇴적층(Ⅲ)은 2개 층위로 나뉜다. Ⅲ-①층은 32~42cm 두께의 황갈색 사질토+잔자갈+넷돌, Ⅲ-②층은 40~60cm 두께의 황갈색 사질토+굵은자갈+넷돌로 각각 형성되어 있다. 생토층(Ⅳ)은 황갈색과 암갈색 사질점토+자갈로 이루어져 있으며, 28~36cm 두께로 노출시켰다.

(2) N260E480(도면 19, 사진 24-③~④)

N260E480 조사갱은 비교적 안정적인 토층상태를 보인다. 표토층(Ⅰ)은 6~8cm 두께의 흑갈색 부식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토층(Ⅱ)은 40~50cm 두께의 황갈색 점질토+자갈+넷돌로 이루어져 있다. 하상퇴적층(Ⅲ)은 28~36cm 두께의 흑갈색 사질토+자갈+넷돌로 나타나며, 생토층(Ⅳ)은 황갈색사질점토+자갈+넷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6~14cm 두께로 노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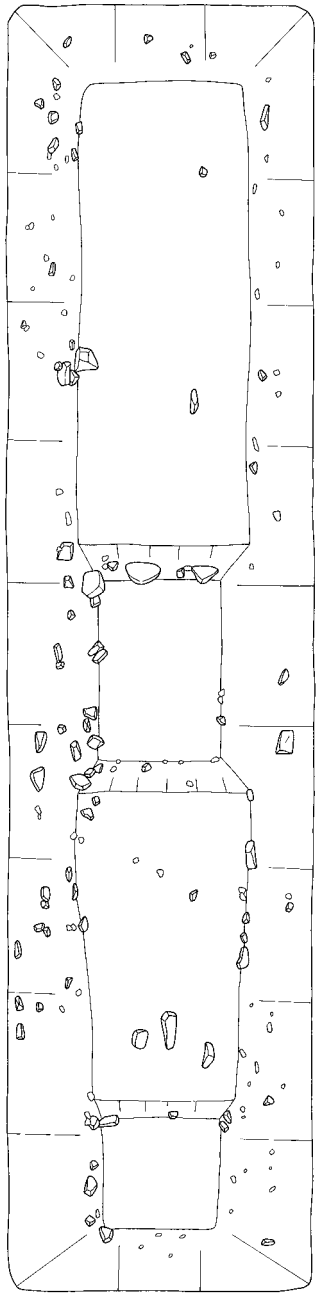


- I. 흑갈색 부식토
- II. ① 암갈색 사질점토+넷돌
② 흑갈색 점질토
③ 적갈색 점사질토
- III. ① 황갈색 사질토+간자갈+넷돌
② 흑갈색 사질토+굵은자갈+넷돌
- IV. 황갈색 +암갈색 사질점토+자갈

도면 18. N250E48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N300E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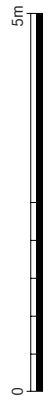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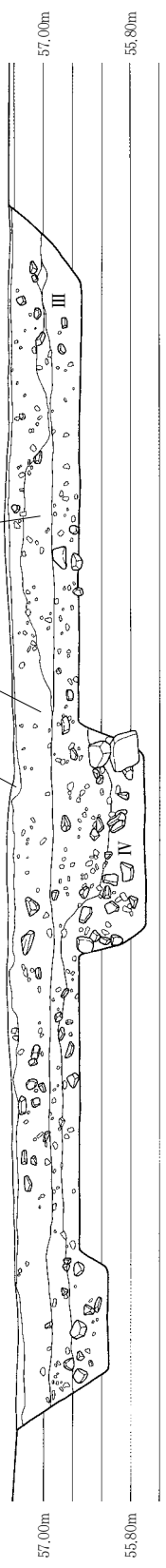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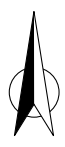
N280E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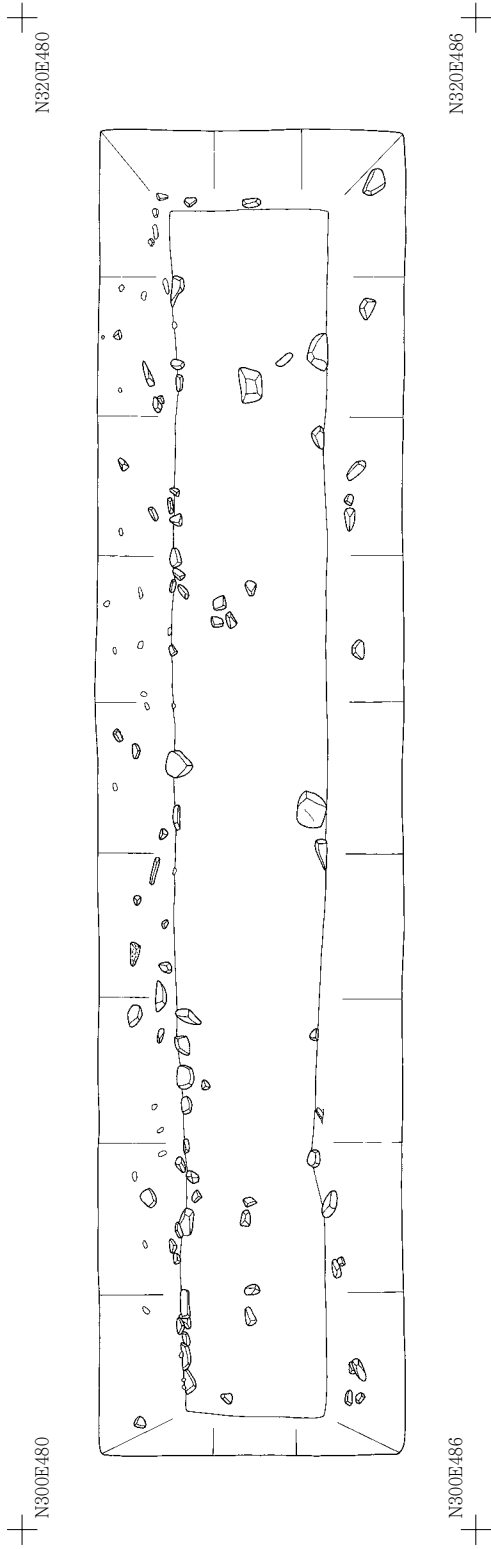
N300E486

N280E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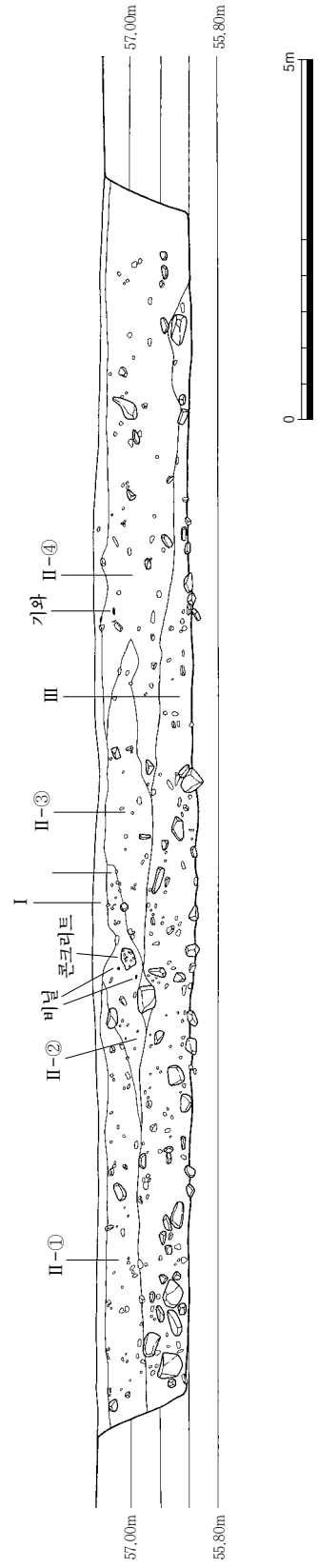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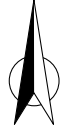
- I. 황갈색 부식토
- II. ① 적갈색 점토+자갈+넷돌
- ② 황갈색 점토+자갈+넷돌
- III. 흑갈색 사질토+자갈
- IV.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



도면 20. N280E48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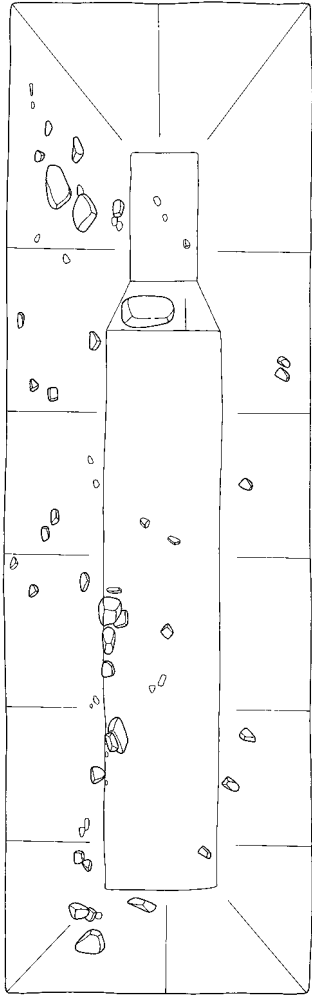


- I. 흑갈색 부식토
- II. ① 황갈색+암갈색 점질토+자갈+넷돌
- ② 암갈색 점질토+자갈(비닐, 콘크리트)
- ③ 암갈색 점질토+자갈+넷돌
- ④ 황갈색+암갈색 점질토+자갈+넷돌(아편)
- III. 흑갈색 사질토+자갈+넷돌



도면 21. N300E48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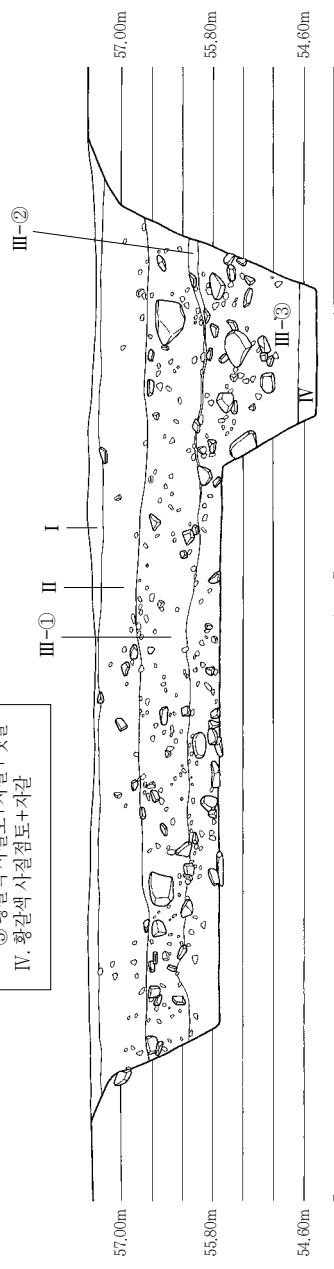
N320E480 + N335E480



N320E486 + N335E486



- I. 흑갈색 부식토
- II. 황갈색 점사질토
- III. ① 흑갈색 사질토+자갈+넷돌
② 회색 점토+넷돌
③ 황갈색 사질토+자갈+넷돌
- IV. 황갈색 사질점토+자갈



도면 22. N320E48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사진 23. ① E480 라인 전경(북에서), ② N250E480 조사갱(남에서),
③ N250E480 조사갱 토층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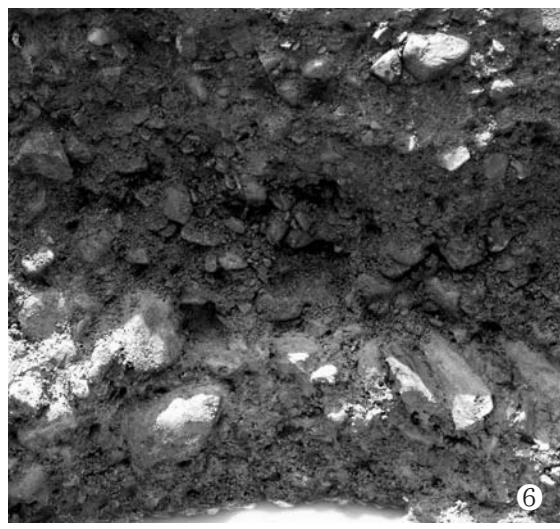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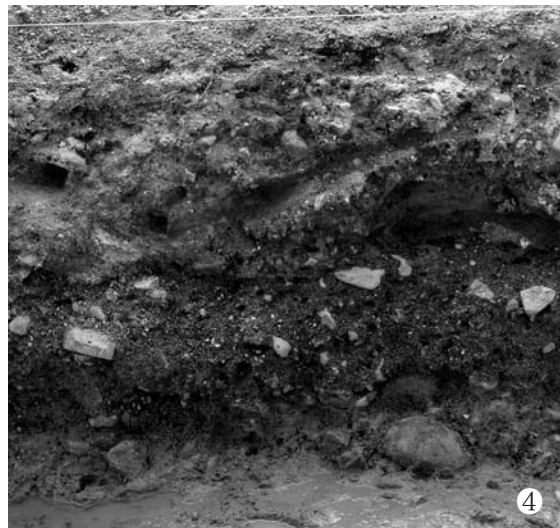


사진 24. ① N250E480 조사갱 생토층, ② N250E480 조사갱 파이프 노출상태,
③ N260E480 조사갱(북에서), ④ N260E480 조사갱 토층,
⑤ N280E480 조사갱(남에서), ⑥ N280E480 조사갱 토층 세부



사진 25. ① N280E480 조사갱 토층 세부, ② N300E480 조사갱(북에서),
③ N300E480 조사갱 토층 세부



사진 26. ① N320E480 조사갱(북에서), ② N320E480 조사갱 생토층 노출상태,
③ N320E480 조사갱 토층 세부

(3) N280E480(도면 20, 사진 24-⑤~⑥ · 25-①)

표토층(I)은 2~8cm 두께의 흑갈색 부식토로 분포되어 있으며, 성토층(II)은 2개 층위로 나뉜다. II-①층은 20~50cm 두께의 적갈색 점토+자갈+넷돌, II-②층은 2~44cm 두께의 황갈색 점토+자갈+넷돌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 하상퇴적층(III)은 8~84cm 두께의 흑갈색 사질토+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길이 86cm, 너비 35cm, 두께 17cm 규모의 장대석 1점이 출토되었다. 생토층(IV)은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10cm 두께로 제토하였다. 조사갱 중간 지점에서 생토층의 해발고도가 56.70m에서 56.20m로 급격히 낮아진다.

(4) N300E480(도면 21, 사진 25-②~③)

표토층(I)은 4~28cm 두께의 흑갈색 부식토로 형성되어 있다. 성토층(II)은 다양한 토층이 혼합되어 있다. II-①층은 10~50cm 두께의 황갈색+암갈색 점질토+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으며, II-②층은 14~54cm 두께의 암갈색 점질토+자갈이 비닐, 콘크리트등과 함께 혼입되어 있다. II-③층은 22~66cm 두께의 암갈색 점사질토+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고, II-④층은 10~112cm 두께의 황갈색+암갈색 점질토+자갈+넷돌과 외편이 혼입되어 나타나는데 II-①층과 동일한 토층으로 판단된다. 하상퇴적층(III)은 12~68cm 두께의 흑갈색 사질토+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다. 생토층은 확인하지 않았다.

(5) N320E480(도면 22, 사진 26)

N320E480 조사갱은 유적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를 15m로 축소하였다. 표토층(I)은 2~18cm 두께의 흑갈색 부식토로 분포되어 있으며, 성토층(II)은 46~60cm 두께의 황갈색 점사질토+자갈+넷돌로 이루어져 있다. 하상퇴적층(III)은 비교적 두껍게 나타나는데, 3개 층위로 세분된다. III-①층은 54~76cm 두께의 흑갈색 사질토+자갈+넷돌, III-②층은 2~12cm 두께의 회색 점토+넷돌, III-③층은 120~132cm 두께의 황갈색사질토+자갈+넷돌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 생토층(IV)은 황갈색+자갈로 이루어져 있으며, 20cm 두께로 제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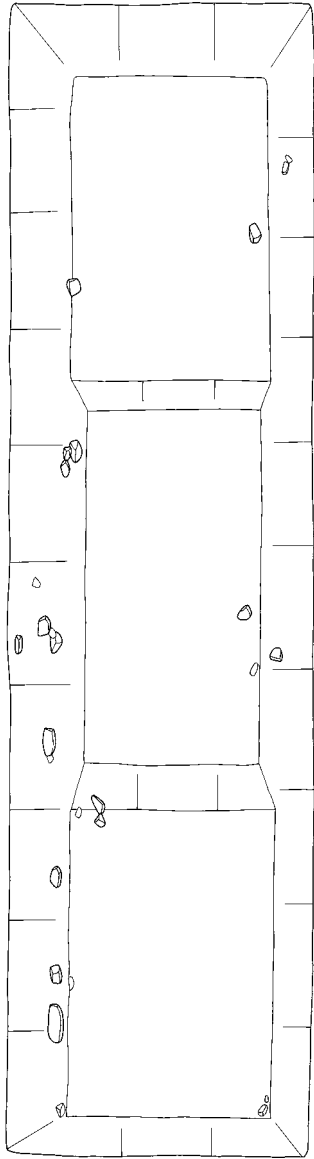
마. E520 라인

E520 라인은 북쪽의 사유지를 제외하고 2개 조사갱만 설정하였다. 모두 성토층(II)은 형성되지 않았으며, 하상퇴적층(III)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N232E520 조사갱에서는 발자국이 남아 있는 빨층이 발견되었으며, 생토층(IV)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토의 해발고도는 58.20m 정도로 남북으로는 평평하지만 앞서 조사했던 서쪽의 E480 라인 조사갱보다는 1m 가량 높게 나타났다. 생토층 해발고도는 남북 방향으로 57.57~57.22m로 측정

N250E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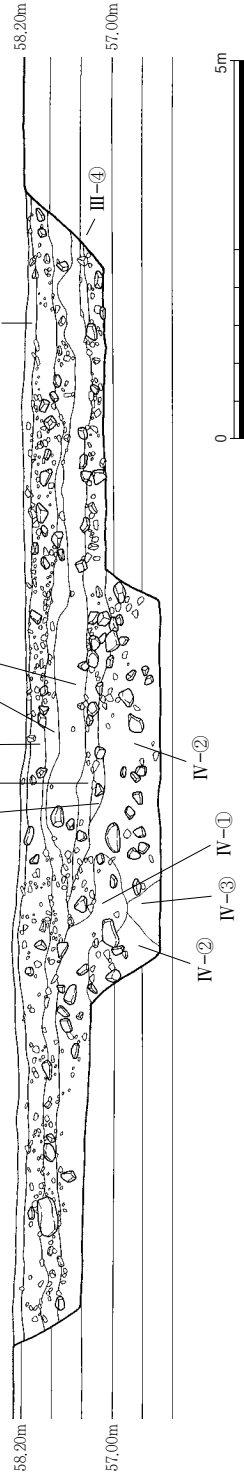
N232E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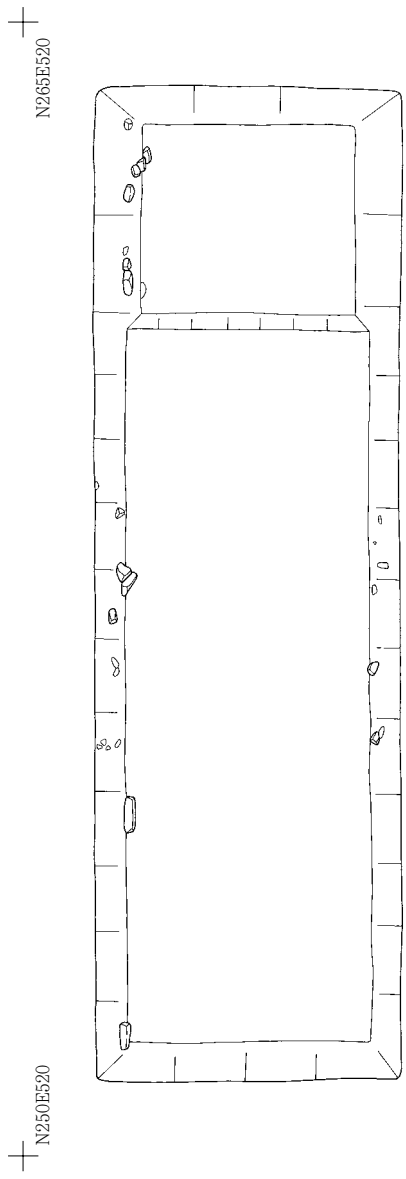
N250E526

N232E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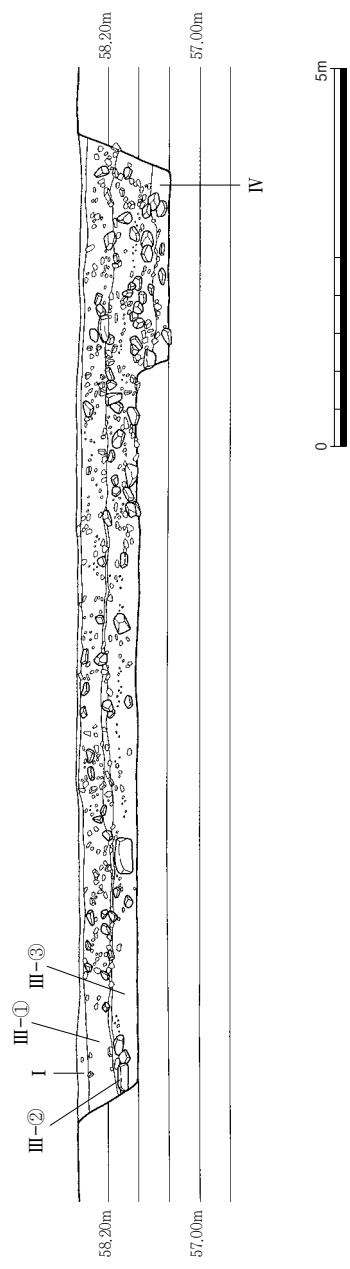
- I. 황갈색 사질점토+자갈
- II. 없음
- III. ① 갈색 사질토+자갈+닛돌
② 모래+자갈(갈색)
③ 흑색 펄층
④ 회갈색 세사(북쪽일부)
⑤ 흑갈색 사질토+닛돌
⑥ 갈색 세사(가운데 일부)
- IV. ①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닛돌
② 회갈색 사질점토+모래+자갈
③ 암갈색 사질점토



도면 23. N232E52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 I. 암갈색 점질토
- II. 없음
- III. ① 흑갈색 점사질토+자갈대량
② 회갈색 세사 간층으로 박으로 기면서 사라짐.
③ 적갈색 사질대량+자갈+넷돌
- IV. 황갈색 사질점토



도면 24. N250E52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사진 27. ① N232E520 조사갱(북에서), ② N232E520 조사갱 서벽,
③ N232E520 조사갱 토층 세부



사진 28. ① 232E520 조사갱 발자국 노출상태(북에서), ② N232E520 조사갱 발자국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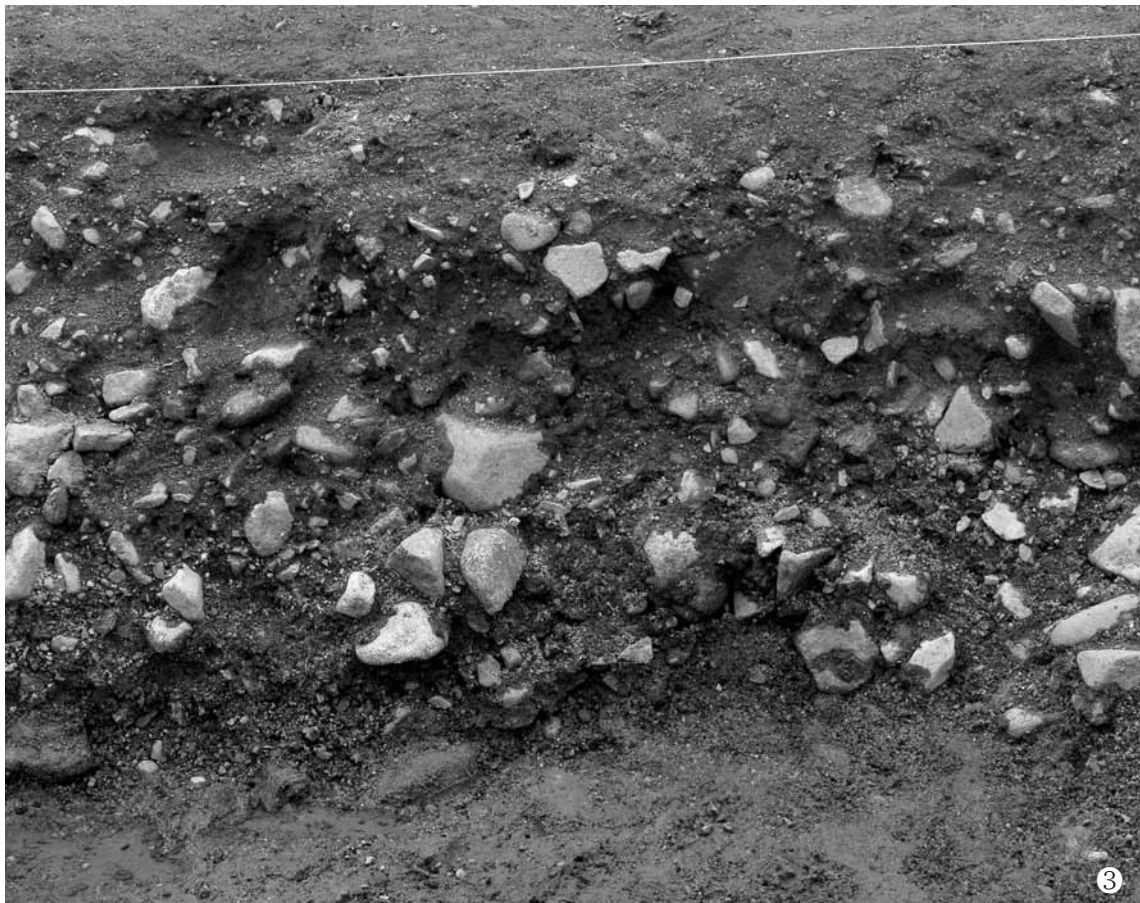


사진 29. ① N250E520 조사갱(남에서), ② N250E520 조사갱 서벽,
③ N250E520 조사갱 토층 세부

되었으며, 북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낮아지지만 N239 지점에서는 57.60m에서 57.20m로 40cm 가량 급하게 낮아진다. 동서 방향으로는 서쪽의 조사갱보다 1.5m 가량 높게 나타났다.

(1) N232E520(도면 23, 사진 27·28)

N232E520 조사갱의 길이는 18m로 설정하였다. 표토층(I)은 4~14cm 두께의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로 분포되어 있다. 표토층 직하에는 바로 하상퇴적층(III)이 형성되어 있는데, 복잡한 양상을 띠며 뿔층도 노출되었다. III-①층은 18~38cm 두께의 갈색 사질토+자갈+넷돌, III-②층은 4~26cm 두께의 갈색 모래+자갈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 III-③층은 N239 지점부터 10~42cm 두께의 흑색 뿔층이 나타나는데 발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III-④층은 3~10cm 두께의 회갈색 미세사로 북쪽의 일부분에서만 나타난다. III-⑤층은 14~30cm 두께의 흑갈색 사질토+자갈로 이루어져 있으며, III-⑥층은 가운데 일부분만 10~16cm 두께의 갈색 세사로 이루어져 있다. 생토층(IV)도 비교적 복잡한데, IV-①층은 26~60cm 두께의 황갈색사질점토+자갈+넷돌, IV-②층은 64~94cm 두께의 회색 사질점토+모래+자갈, IV-③층은 암갈색 사질점토로 형성되어 있으며, 44cm 두께로 제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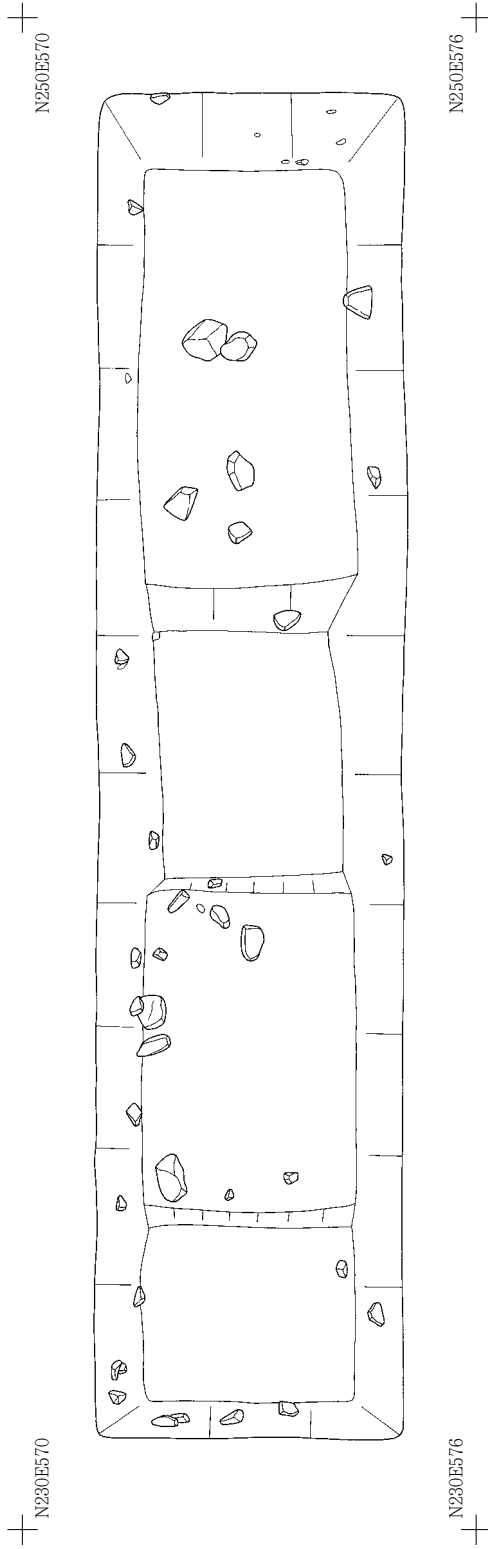
(2) N250E520(도면 24, 사진 29)

N250E520 조사갱은 길이 15m로 설정하였다. 표토층(I)은 2~15cm 두께의 암갈색 점질토로 형성되어 있다. 하상퇴적층(III)은 3개 층위로 세분되어 있다. III-①층은 30~40cm 두께의 흑갈색 점사질토+자갈로 나타나며, III-②층은 2~13cm 두께의 회갈색 미세사가 얇게 형성되어 북쪽으로 가면서 사라진다. III-③층은 50~64cm 두께의 적갈색 사질+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다. 생토층(IV)은 황갈색 사질점토로 형성되어 있으며, 약 20cm 두께로 제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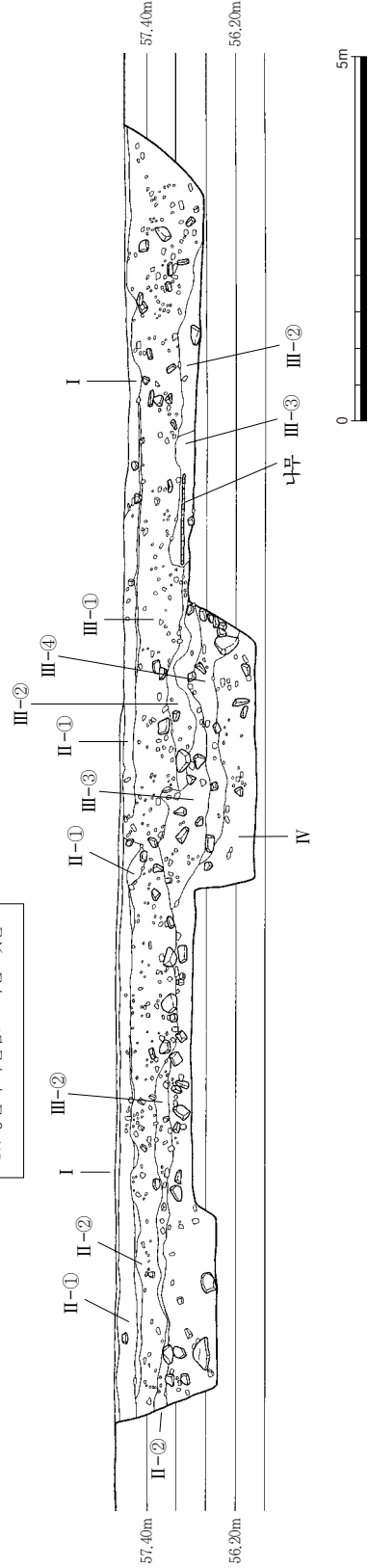
바. E570 라인

E570 라인도 사유지를 제외하고 남쪽 부분에 2개소의 조사갱을 설정하였다. 이곳은 흙더미가 무분별하게 쌓여 있었고 최근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였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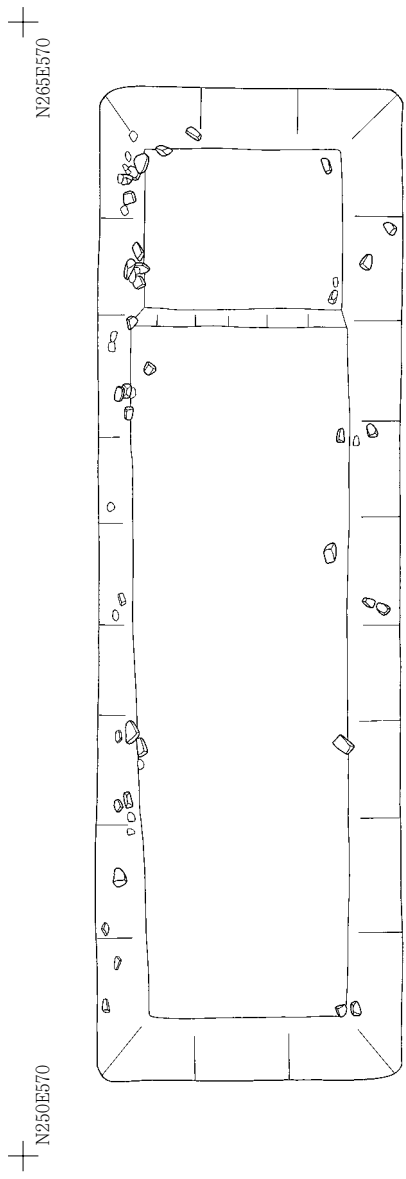
토층상태는 남쪽 부분의 하상퇴적층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뿔층도 확인되었다. 표토의 해발고도는 57.82m에서 57.20m로 측정되며, 북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평평한 편이다. 생토층의 해발고도는 57.10m~56.40m로서 북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N238 지점에서는 급격하게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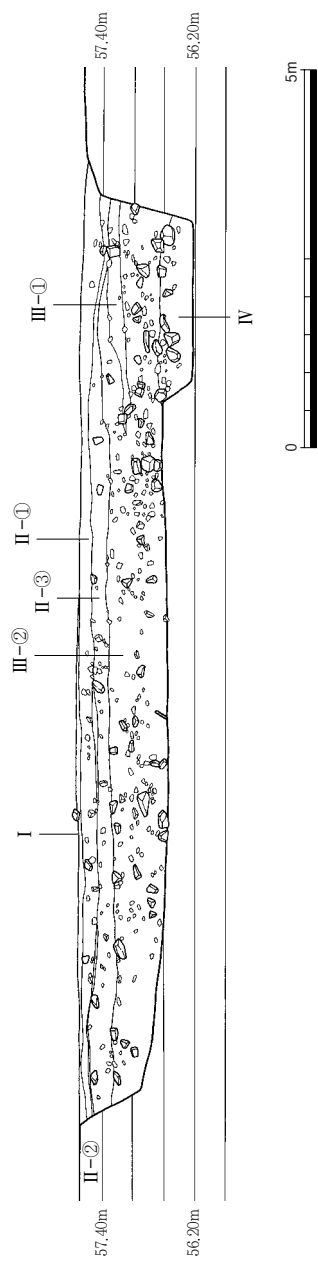
- I. 암갈색 점질토
- II. ① 황색+갈색 점질토
- ② 적갈색 점질토
- III. ① 황갈색 점질+부식토
- ② 갈색 사질점토
- ③ 흑갈색 백+자갈+멧돌
- ④ 회갈색 사질점토
- IV.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멧돌



도면 25. N230E57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 I. 암갈색 점질토
- II. ① 암갈색+회백색 점토
- ② 적갈색 점질토
- ③ 황갈색 점사질토+자갈+(부분적 세사)
- III. ① 흑갈색 점질토
- ② 적갈색 모래+자갈+갯돌
- IV. 황갈색+암갈색 사질점토+모래+갯돌+자갈



도면 26. N250E57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사진 30. ① E570 라인 전경(북에서), ② N230E570 조사갱(북에서),
③ N230E570 조사갱 토층 세부



사진 31. ① N250E570 조사갱(북에서), ② N250E570 조사갱 토층 세부

(1) N230E570(도면 25, 사진 30)

표토층(I)은 2~20cm 두께의 암갈색 점질토로 형성되어 있다. 성토층(II)은 2개 층위로 나뉘는데, II-①층은 12~28cm 두께의 황색+황갈색 점질토+자갈, II-②층은 2~8cm 두께의 적갈색 점질토로 형성되어 있다. 하상퇴적층(III)은 비교적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뿔층도 나타난다. III-①층은 24~60cm 두께의 황갈색 점질토+부식토, III-②층은 4~32cm 두께의 갈색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다. III-③층은 8~64cm 두께의 흑갈색 뿔+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는데, III-②층과 번갈아 나타난다. III-③층에서는 길이 125cm 가량의 나무토막이 혼입되어 있었다. III-④층은 16~52cm 두께의 회갈색 사질점토로 나타난다. 생토층(IV)은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으며, 40~60cm의 두께로 제토하였다.

(2) N250E570(도면 26, 사진 31)

N250E570 조사갱은 남북 길이를 15m로 축소하였다. 표토층(I)은 2~10cm 두께의 암갈색 점질토로 형성되어 있다. 성토층(II)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II-①층은 6~24cm 두께의 암갈색+회백색 점토로 형성되어 있으며, II-②층은 2~6cm 두께의 적갈색 점질토가 띠 형태로 나타난다. II-③층은 15cm 두께의 황갈색 점사질토+세사+자갈로 형성되어 있다. 하상퇴적층(III)의 III-①층은 6~20cm 두께의 흑갈색+갈색 점질토, III-②층은 60~80cm 두께의 적갈색 모래+자갈+넷돌로 각각 형성되어 있다. 생토층(IV)은 황갈색과 암갈색의 사질점토+모래+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으며, 50cm 두께로 제토하였다.

사. E600 라인

E600 라인은 공사용 흙더미와 석재가 무분별하게 쌓여 있었으며, 최근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였던 곳이다. 최상층에는 성토층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고무, 비닐, 콘크리트 조각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쓰레기들이 혼입되어 있었다. 남단의 하상퇴적층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나 북쪽으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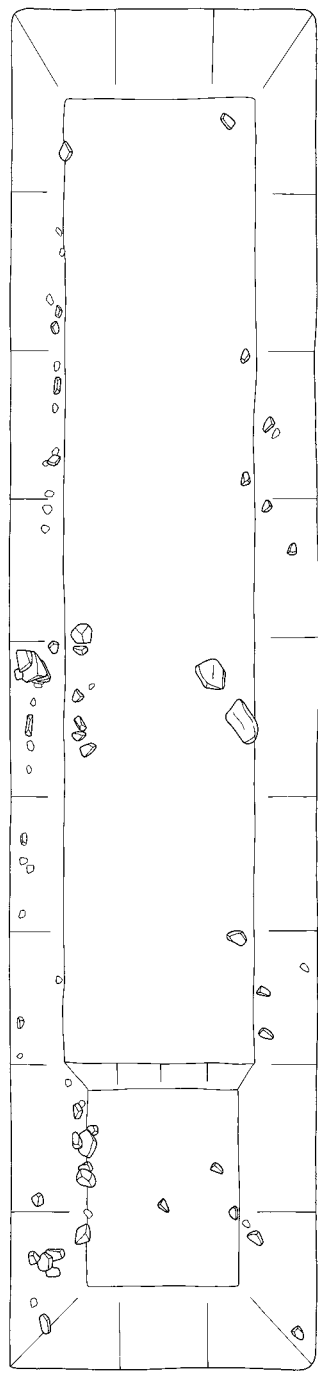
지표의 해발고도는 58.42m~58.00m로서 북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평평한 편이다. 서쪽의 E570 라인보다는 60cm 가량 높게 측정된다. 생토층의 해발고도는 57.12m~55.80m로 측정되어 역시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2m 이상의 고저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지점에서 급격하게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 N230E600(도면 27, 사진 32)

성토층(II)은 5개 층위로 세분되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II-①층은 18~38cm 두께의 흑

N250E600

N230E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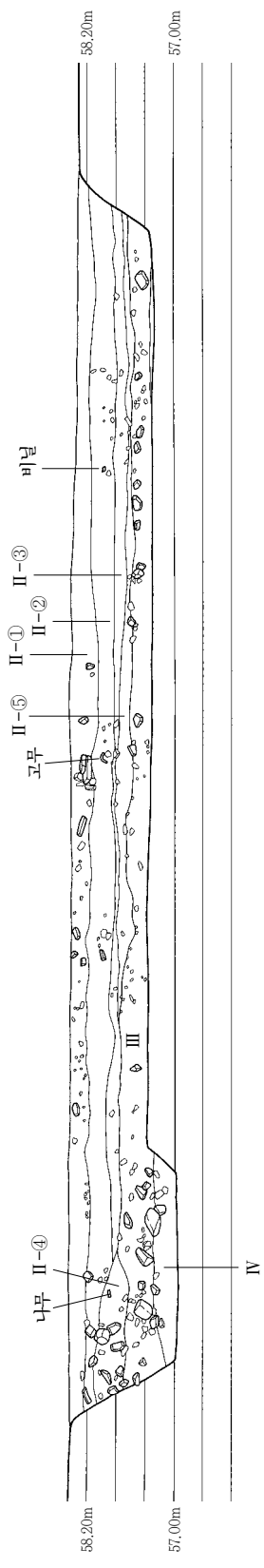


N250E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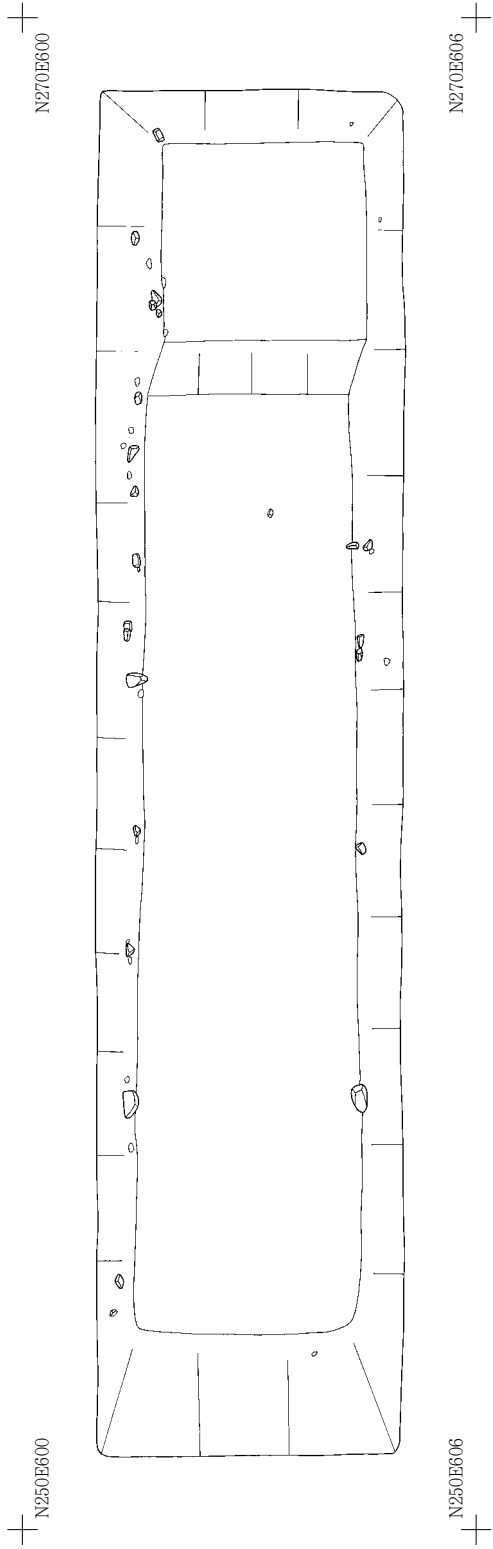
N230E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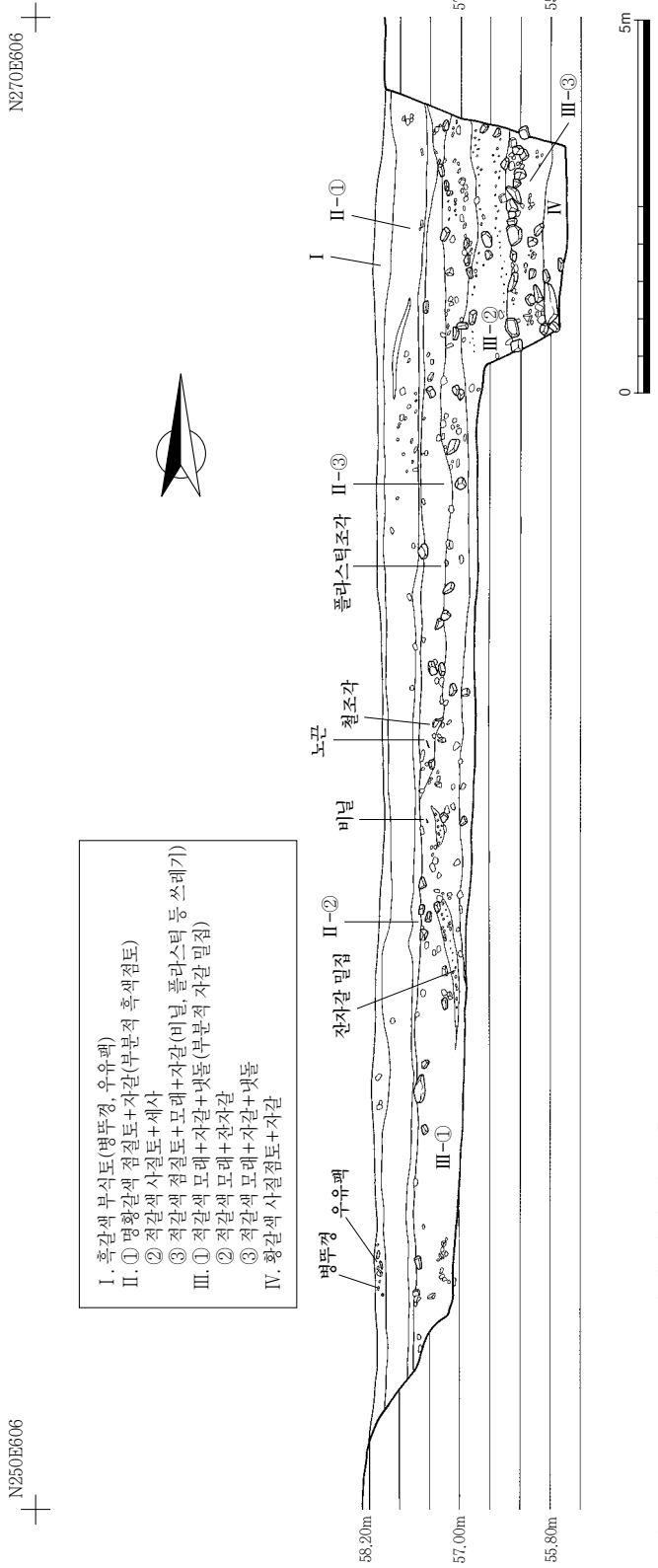
- I. 없음
- II. ① 흑갈색+암갈색 점질토+자갈+넷돌+쓰레기(콘크리트 조각)
- ② 흑갈색+암갈색 점질토+자갈(고무+비닐)
- ③ 흑갈색+황갈색 점토+자갈
- ④ 흑갈색 사질토+넷돌+나무
- ⑤ 적갈색 점사질토
- III. 갈색 모래+자갈+넷돌
- IV. 적갈색 점사질토+모래+자갈+넷돌



도면 27. N230E60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 I. 황갈색 부식토 (병뚜껑, 우유팩)
- II. ① 면황갈색 점질토+자갈(부분적 흑색점토)
② 적갈색 사질토+세사
- III. ③ 적갈색 점질토+모래+자갈(비닐, 플라스틱 등 쓰레기)
② 적갈색 모래+자갈+넷돌 (부분적 자갈 밀집)
③ 적갈색 모래+자갈
- IV. 황갈색 사질점토+자갈



도면 28. N250E60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사진 32. ① N230E600 조사갱(남에서), ② N230E600 조사갱 토층 세부



사진 33. ① N250E600 조사갱(남에서), ② N250E600 조사갱 생토층 노출상태,
③ N250E600 조사갱 토층 세부

갈색과 암갈색의 점질토+자갈+넷돌에 콘크리트 조각이 혼입되어 있으며, II-②층은 18~42cm 두께의 흑갈색과 암갈색의 점질토+자갈에 고무, 비닐 등이 혼입되어 있다. II-③층은 2~22cm 두께의 흑갈색+황갈색 점토+자갈, II-④층은 34~44cm 두께의 흑갈색 사질토+넷돌에 나무조각이 혼입되어 있다. II-⑤층은 2~28cm 두께의 적갈색 점사질토로 형성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나타난다. 하상퇴적층(III)은 28~56cm 두께의 갈색 모래+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다. 생토층(IV)은 적갈색 점사질토+모래+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으며, 10cm 미만으로 얇게 체토하였다.

(2) N250E600(도면 28, 사진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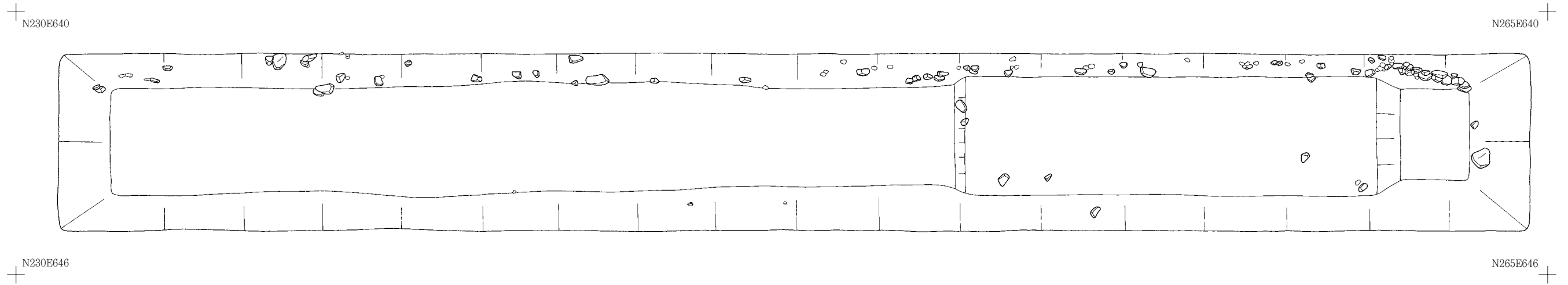
표토층(I)은 6~24cm 두께의 흑갈색 부식토로 형성되어 있으며, 병뚜껑과 우유팩이 혼입되어 있다. 성토층(II)은 3개 층으로 나뉜다. II-①층은 28~48cm 두께의 명황갈색 점질토+자갈이 나타나는데, 부분적으로 소량의 흑갈색 점토가 혼입되어 있다. II-②층은 2~18cm 두께의 적갈색 점사질토+자갈이 얇게 분포되어 있다. II-③층은 10~44cm 두께의 적갈색 점질토+모래+자갈에 비닐, 플라스틱 조각 등이 혼입되어 있다. 하상퇴적층(III)은 비교적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며, 3개 층위로 세분된다. III-①층은 20~68cm 두께의 적갈색 모래+자갈+넷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분적으로 잔자갈이 밀집되어 있다. III-②층은 38~68cm 두께의 적갈색 모래+잔자갈로 이루어져 있는데, 잔자갈이 띠 모양을 이루고 있다. III-③층은 40~60cm 두께의 적갈색 모래+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다. 생토층(IV)은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로 형성되어 있으며, 15~32cm 두께로 체토하였다.

아. E640 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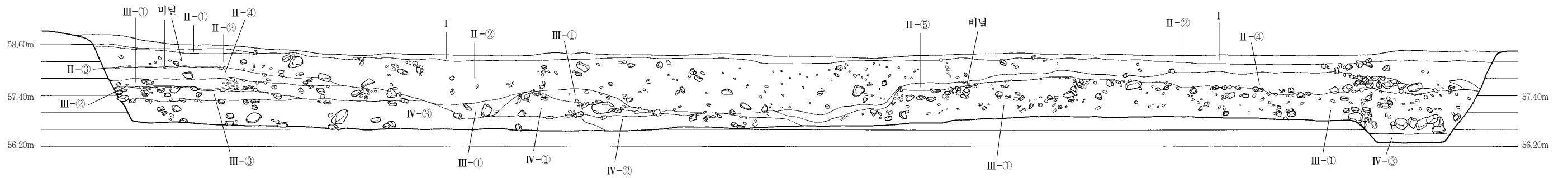
E640 라인은 천군로와 원효로가 만나는 지점과 가까워지면서 남북 길이가 짧아진 관계로 N230E640 조사갱을 길이 35m로 설정하였다. 지표의 해발고도는 58.80m~58.40m로 북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낮아지며, E600 라인보다는 전체적으로 40cm 가량 높다. 생토층의 해발고도는 57.30m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북단에서는 56.50m로 측정된다.(도면 29, 사진 34)

표토층(I)은 4~22cm 두께의 흑갈색 부식토로 분포되어 있다.

성토층(II)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II-①층은 2~12cm 두께의 황갈색 사질토가 조사갱 남쪽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II-②층은 18~130cm 두께의 명갈색+암갈색 점사질토+자갈+넷돌이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II-③층은 2cm 두께로 조사갱 남쪽 부분에서 얇게 형성되어 있으며, 비닐조각이 혼입되어 있다. II-④층은 12~50cm 두께의 황갈색 점질토+자갈로 이루어



- I. 흑갈색 부식토
- II. ① 황갈색 사질토
- ② 명갈색+암갈색 점사질토+자갈+넷돌
- ③ 검은색 부식토+비닐
- ④ 황갈색 점질토+자갈
- ⑤ 흑갈색+암갈색 사질점토+비닐
- III. ① 적갈색 모래+자갈+넷돌
- ② 적갈색 산화층
- ③ 적갈색 사질토+자갈
- IV. ① 암적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
- ② 적황색 사질점토+자갈
- ③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



도면 29. N230E64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사진 34. ① N230E640 조사갱(북에서), ② N230E640 조사갱 서벽,
③ N230E640 조사갱 토층 세부

져 있다. 조사갱 중간에서 II-⑤층이 나타나는데, 4~20cm 두께의 흑갈색+암갈색 사질점토에 비닐이 혼입되어 있다.

하상퇴적층(III)도 3개 층위로 세분되며,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 III-①층은 적갈색 모래+자갈+넷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사갱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남쪽에서는 30cm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N240 지점에서는 땀이 섞인 채 간헐적으로 나타나며, 중간 부분에서는 겨우 흔적만 보이다가 북쪽으로 갈수록 매우 두꺼워져 140cm로 측정된다. III-②층은 2cm 두께의 적갈색 산화층으로 남쪽 일부에서만 나타난다. III-③층은 10~38cm 두께의 적갈색 사질토에 다량의 자갈이 섞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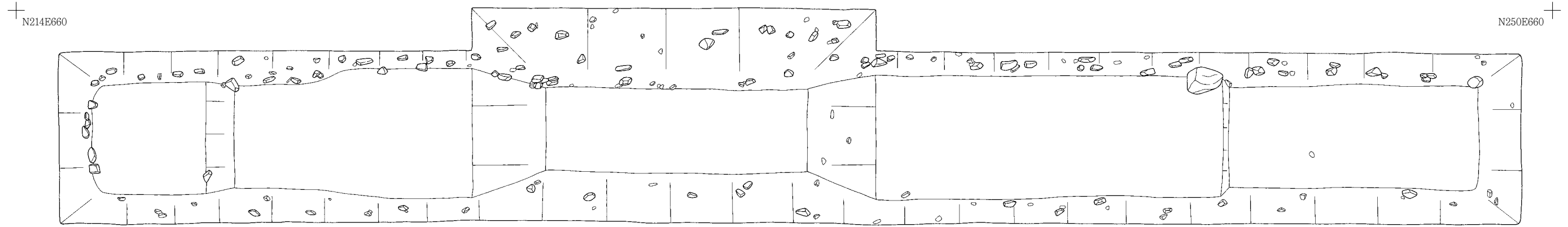
생토층(IV)도 3개 층위로 세분된다. IV-①층은 중간부분에 잠깐 나타나는데, 16~56cm 두께의 암적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으며, IV-②층은 22~32cm 두께의 적황색 사질점토+자갈로 형성되어 중간부분에서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진다. IV-③층은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로서 중간 부분을 제외한 남쪽과 북쪽에 형성되어 있으며, 26~68cm 두께로 제토하였다.

자. E660 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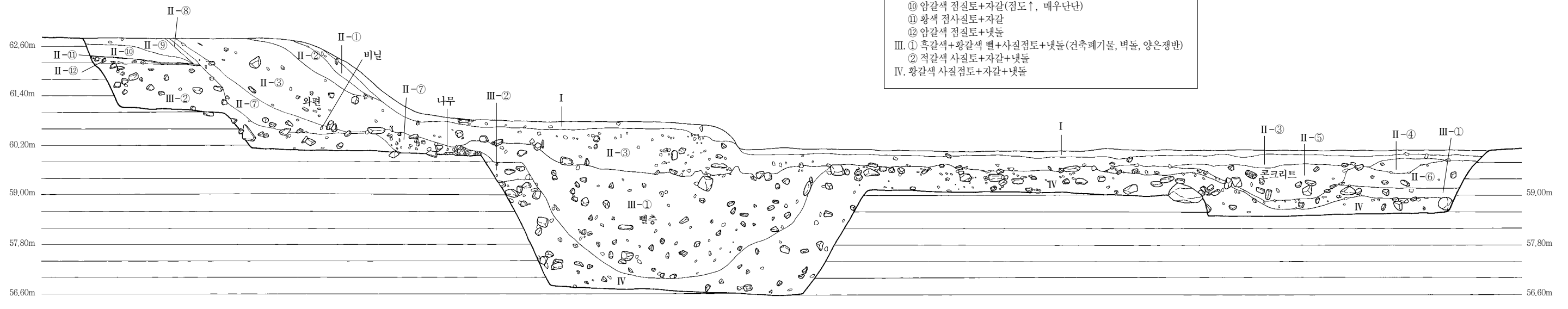
E660 라인의 지표는 남단에서 북으로 약 6m 지점까지는 동일한 해발고도를 유지하다가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N214E660 조사갱은 길이 36m로 설정하였다. 지표의 해발고도는 가장 높은 남단이 60.08m로 시작하여 N220과 N230지점에서 층단상으로 낮아져 북단에서는 58.10m로 측정된다. 하상퇴적층은 남단이 60.36m로 측정되며, N218과 N222 지점에서 급하게 낮아지며, N224 지점에서는 57.80m로 형성되었다가 가운데의 땀층을 지난 북단 N240 지점에서는 57.70m로 나타난다. N242 지점에서 다시 급하게 낮아져 57.18m로 형성된다. 생토층의 해발고도는 남단이 57.34m에서 시작하여 N230 지점에서는 땀층에 의하여 일부 낮아져 55.00m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57.70m까지 올라가지만 N242 지점에서 다시 56.90m로 낮아진다. E640 라인에 비하여 40cm 가량 높게 측정된다.(도면 30, 사진 35·36)

원효로와 접한 남단에서는 최근까지 계속된 성토에 의하여 표토층(I)이 오히려 묻혀버린 상태이며, 북쪽에서만 2~26cm 두께의 흑갈색 부식토로 관찰된다.

성토층(II)은 12개 층위로 세분될 만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II-①층은 남쪽의 높은 부분에서 10~25cm 두께의 황갈색 사질토+자갈로 나타나며, 그 아래의 II-②층은 20~50cm 두께로 자갈에 토기조각, 전선조각 등이 혼입되어 있다. II-③층은 조사갱 전반에 걸쳐 두껍게 나타나고 있으나 북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며, 8~154cm 두께의 황갈색과 암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에 장판, 와편 등이 혼입되어 있다. II-④~⑥층은 북쪽에서만 나타나는데, II-④층은 10~38cm 두께의 암갈색 점질토, II-⑤층은 5~87cm 두께의 암갈색 자갈+자갈+넷돌에 콘크리트조각이



- I. 암갈색 부식토
- II. ① 황갈색 사질토+자갈
- ② 황색+회색자갈(토기조각, 전신)
- ③ 황갈색+암갈색 사질점토+넷돌+자갈(외편, 장판)
- ④ 암갈색 점질토
- ⑤ 암갈색 점질토+자갈+넷돌+콘크리트
- ⑥ 암갈색 점질토+자갈
- ⑦ 암갈색 점질토+자갈+넷돌(비닐, 쇠못, 나무조각)
- ⑧ 회청색 점질토
- ⑨ 황색+회색 점사질토+자갈
- ⑩ 암갈색 점질토+자갈(점도↑, 매우단단)
- ⑪ 황색 점사질토+자갈
- ⑫ 암갈색 점질토+넷돌
- III. ① 흑갈색+황갈색 뿔+사질점토+넷돌(건축폐기물, 벽돌, 양은쟁반)
- ② 적갈색 사질토+자갈+넷돌
- IV.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



도면 30. N214E66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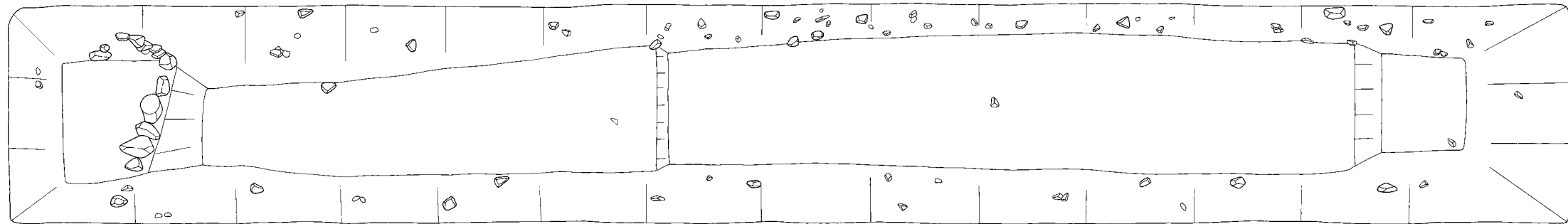
사진 35. ① N214E660 조사갱(북에서), ② N214E660 조사갱 서벽,
③ N214E660조사갱 토층 세부



사진 36. ① N214E660 조사갱 뽕층, ② N214E660 조사갱 벽돌 노출상태,
③ N214E660 조사갱 양은쟁반 노출상태

N212E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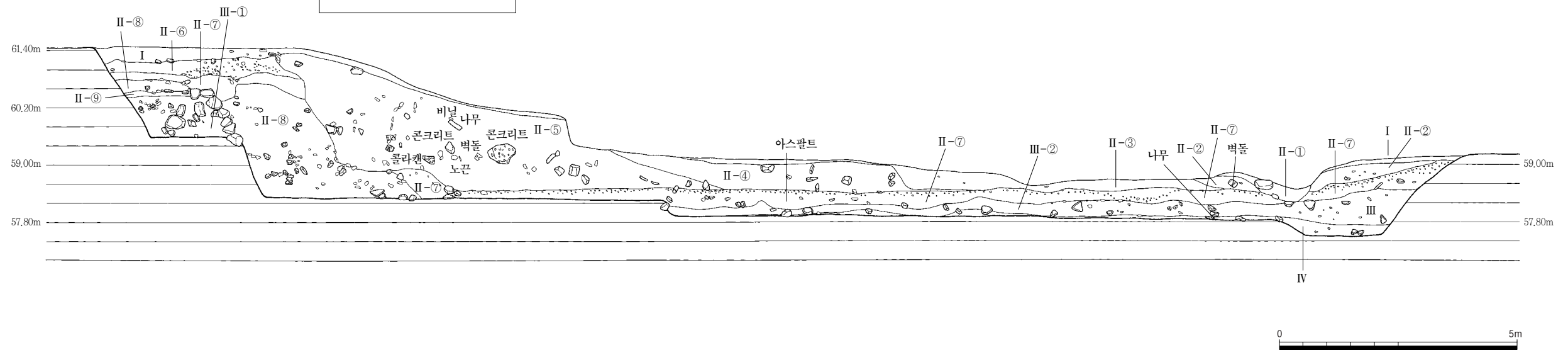
N243E700



N212E706

N243E706

- I. 암갈색 부식토
- II. ① 정리하면서 덮힌 최근의 흙
- ② 황갈색 점질토+자갈
- ③ 암갈색+적갈색 점질토+자갈
- ④ 황갈색 사질점토+자갈
- ⑤ 흑갈색 부식토+자갈+쓰레기
- ⑥ 황갈색 사질점토+다량의 자갈
- ⑦ 암갈색 사질점토+자갈
- ⑧ 모래+자갈(갈색)
- ⑨ 암갈색 점질토
- III. ① 갈색 사질토+넷돌
- ② 갈색 모래+자갈+넷돌
- IV. 황갈색 사질점토+자갈



도면 31. N212E70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혼입되어 있으며, II-⑥층은 36~68cm 두께의 암갈색 점질토+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남쪽에서 II-⑦층이 나타나는데, 2~64cm 두께의 암갈색 점질토+자갈+넷돌에 비닐, 쇠못, 나무조각 등이 혼입되어 있다. II-⑧층은 8~12cm 두께의 회청색 점질토로서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II-⑨층은 13~40cm 두께의 황색과 회색의 점사질토+자갈, II-⑩층은 12~28cm 두께의 암갈색 점질토+자갈로 각각 형성되어 있다. II-⑪층은 서벽에서는 얇게 남아 있으나 동쪽으로 갈수록 두껍게 나타나고 있다. 2~6cm 두께의 황갈색 사질점토+자갈이 밀도가 높고 단단하게 다져져 있다. II-⑫층은 2~15cm 두께의 암갈색 점질토+넷돌로 형성되어 있다.

퇴적층(III)은 빨층과 전형적인 하상퇴적층으로 양분된다. III-①층은 오랫동안 늪에 의하여 형성된 대형 빨층이다. 전체 두께 2.7m, 최대 너비 7.4m의 반원형으로 흑갈색과 황갈색의 빨층에 사질점토와 넷돌, 벽돌, 양은쟁반 등이 혼입되어 있다. 빨 이외의 혼입층은 늪지를 매립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매립시의 교란으로 인하여 빨층 상면이 불규칙적으로 형클어져 있다. III-②층은 빨층 남쪽과 북쪽에서 4~110cm의 두께로 적갈색 사질토+자갈+넷돌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생토층(IV)은 빨층 바닥에 의하여 상당부분 굴광되었다.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으며, 14~216cm의 두께로 제토하였다.

차. E700 라인

E700 라인은 제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도가 높은 토층이 나타났는데, 원효로의 제방이 일부 잔존하는 부분으로서 최근에 인위적으로 다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방은 20~50cm 크기의 넷돌로 축조되어 있었다. N212E700 조사갱은 길이 31m로 설정하였다.(도면 31, 사진 37)

표토층(I)의 해발고도는 남단이 61.46m로 측정되며, N215 지점에서 급경사를 이루고 N223 지점에서는 층단상으로 낮아져 북단에서 58.70m로 측정된다. 하상퇴적층(III)의 해발고도는 제방 안쪽 60.40m, 중간 지점 57.60m로 각각 측정되며, 북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높아져 북단은 58.00m로 측정된다. 생토층(IV)의 해발고도는 남단 57.40m, 북단 57.22m로 각각 측정되며, 서쪽의 E660 라인보다는 30cm 가량 높다.

표토층(I)은 4~32cm 두께의 암갈색 부식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간 일부가 움푹파인 관계로 결실되었다.

성토층(II)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경계선은 대부분 남쪽의 높은 곳에서 북쪽으로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다. II-①층은 최근에 형성된 층위이며, II-②층은 10~36cm 두께의 황갈색 점질토+자갈로서 북쪽 일부에서 확인되었다. II-③층은 2~46cm 두께의 암갈색과 적갈색의 점질토+자갈로 형성되어 있다. II-④층은 4~65cm 두께의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로 나타나며, II-⑤층은 10~212cm 두께의 흑갈색 부식토와 자갈+쓰레기로 비교적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II-⑥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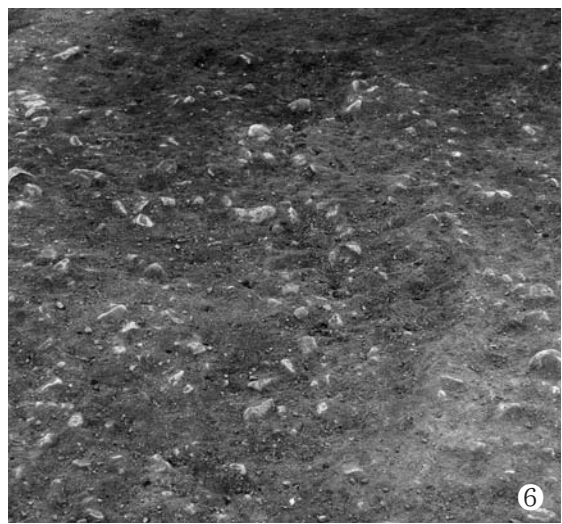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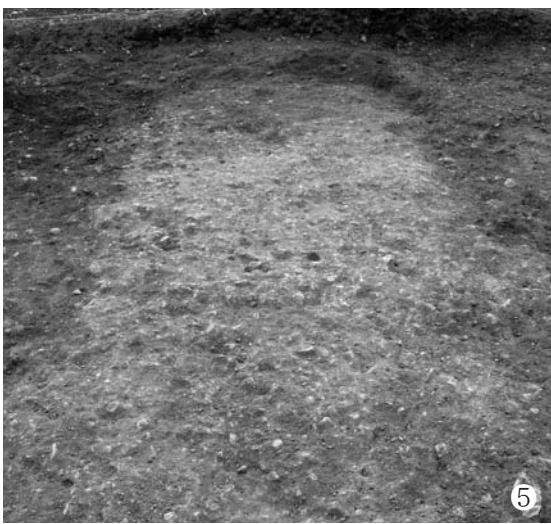


사진 37. ① N212E700 조사갱(남에서), ② N212E700 조사갱 서벽,
 ③ N212E700 조사갱 축대 단면, ④ N212E700 조사갱 토층 세부,
 ⑤ N212E700 조사갱 다짐층, ⑥ N212E700 조사갱 다짐층 세부

20~46cm 두께의 황갈색 사질점토+다량의 자갈로 밀도가 높고 단단하게 다져져있다. II-⑦층은 12~52cm 두께의 암갈색 사질점토+자갈이 일부를 제외한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II-⑧층은 12~238cm 두께의 갈색 모래+자갈로서 제방 안쪽에서는 평평하게 나타나며 바깥쪽으로는 두껍게 쌓여있다. II-⑨층은 6~12cm 두께의 암갈색 점질토로 얇게 나타난다.

하상퇴적층(III)에서 III-①층은 제방 안쪽, III-②층은 제방 바깥쪽으로 각각 형성되어 있다. III-①층은 84~87cm 두께의 갈색 사질토+넷돌, III-②층은 10~74cm 두께의 갈색 사질토+넷돌로서 북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생토층(IV)은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으며, 22~32cm 두께로 체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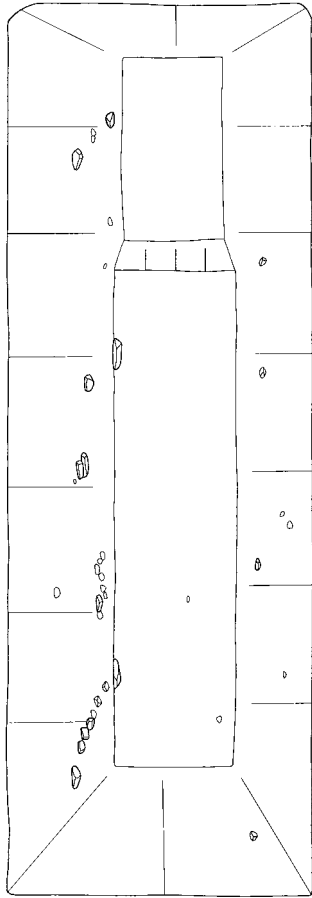
카. E740 라인

E740 라인은 유적의 동단에 해당하며, 원효로와 천군로가 만나는 지점과 인접하여 있다. N211E740 조사갱은 길이 14m로 설정하였다.(도면 32, 사진 38)

지표의 해발고도는 남단이 61.72m로 측정되어 동 유적에서 가장 높다. N221 지점에서 급경사를 이루어 북단에서는 59.40m로 측정된다. 하상퇴적층(III)의 해발고도는 전체적으로 60.10m로 측정된다. 생토층(IV)은 남단 58.50m, 북단 58.18m로 각각 측정되며, E700 라인에 비하여 1m 가량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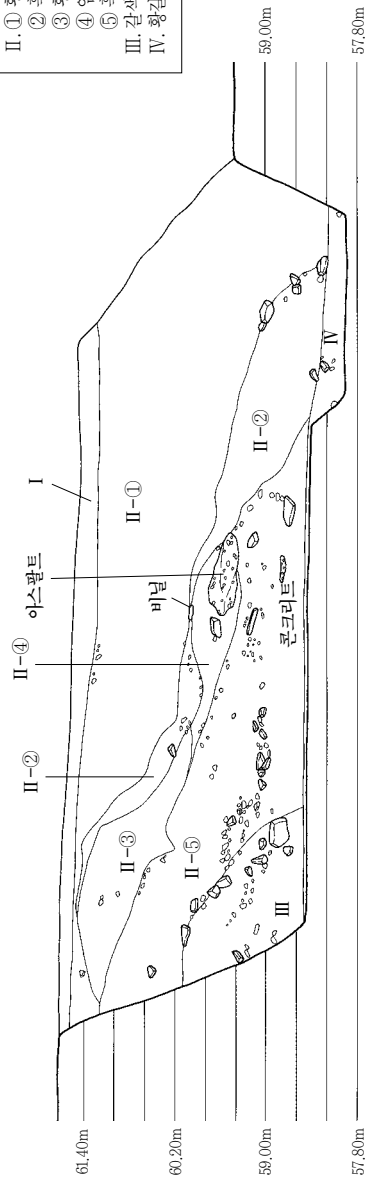
표토층(I)은 13~31cm 두께의 암갈색 부식토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성토층(II)이 두껍고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 II-①층은 2~248cm 두께의 황갈색 점사질토+잡석, II-②층은 2~100cm 두께의 흑갈색 부식토+자갈이 비닐과 혼입되어 있다. II-③층은 70~108cm 두께의 황갈색 마사로 이루어져 있다. II-④층은 44~64cm 두께의 암갈색 사질토에 아스팔트가 혼입되어 있으며, II-⑤층은 84~172cm 두께의 흑갈색 점질토+자갈이 콘크리트와 혼입되어 있다. 하상퇴적층(III)은 103~152cm 두께의 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로 형성되어 있다. 생토층(IV)은 황갈색 사질점토+자갈로 이루어져 있으며, 4~38cm 두께로 체토하였다.

N211E740 N225E740



N211E746 N225E746

- I. 경작층
- II. ① 황갈색 점사질토+잠석
- ② 흑갈색 부식토+자갈+비닐
- ③ 황갈색 마사토
- ④ 암갈색 사질토+아스팔트
- ⑤ 흑갈색 점적토+자갈+깃돌
- III. 갈색 사질점토+자갈+넷돌
- IV. 황갈색 사질점토+자갈



도면 32. N211E740 조사갱 평면 및 토층도



사진 38. ① N211E740 조사갱(북에서), ② N211E740 조사갱 서벽,
③ N211E740 조사갱 토층 세부

2. 土層狀態

동 유적의 전반적인 토층 양상은 위로부터 표토층, 성토층, 퇴적층, 생토층 등 크게 4개의 층위로 구분되었으며,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도면 33·34, 사진 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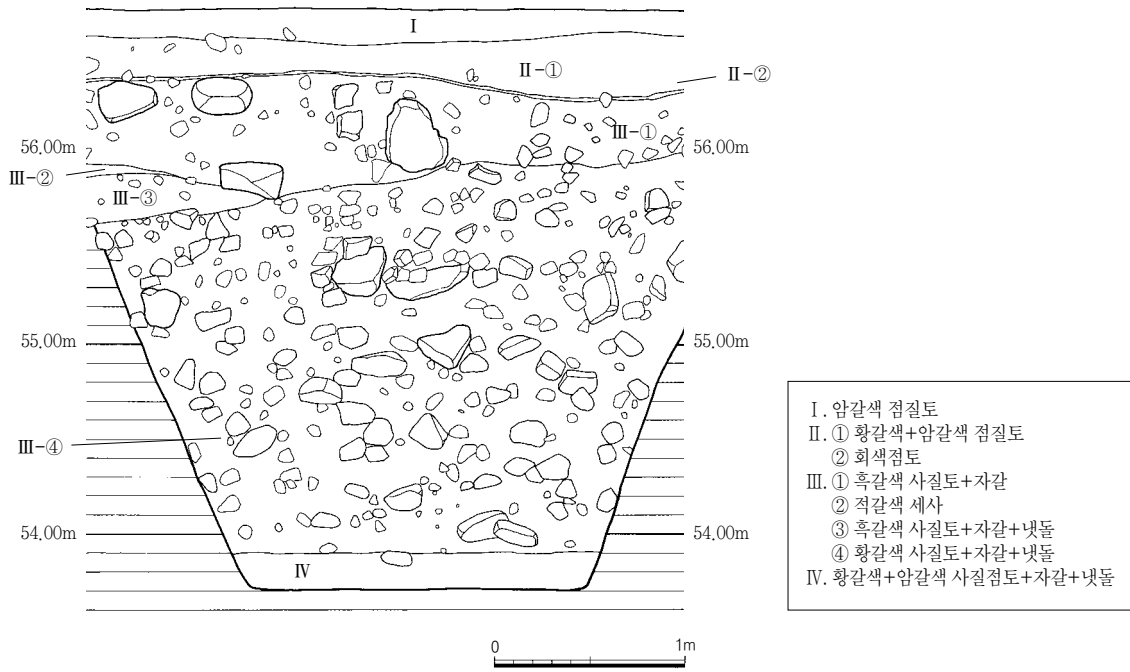
표토층(I 층)은 최근까지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형성된 소위 경작층으로 암갈색 부식토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유적 전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으며, 그 두께는 10~30cm 범위 내에 분포되어 있다. 표면의 해발고도는 E360 라인 56.4~57.2m, E640 라인 58.4~58.8m로서 약 2m의 고저차를 보이는 동고서저형으로 확인되었다.

성토층(II 층)은 다른 곳에서 흙을 반입하여 매립한 층위로서 다양한 토층상태를 보이나, 자갈이 혼입된 황갈색 사질점토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란색 흙은 경주박물관을 지을 때 반출된 잔토를 가져다 메운 것’이라는 편입이전 지주들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이 황갈색 사질점토층은 국립경주박물관 신축 부지를 조성하던 1970년대 초 이곳에 매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지 서단부 일부를 제외한 넓은 범위에 걸쳐 형성되어 있으며, 두께는 10~130cm로서 그 차이가 심한 편이다.

퇴적층(III 층)은 복천 하상으로 이용될 때 형성된 층위로서 모래, 자갈, 냇돌 등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하상 퇴적층이다. 퇴적층 일부에서 신발밑창, 형걸, 플라스틱 등 최근의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들이 혼입되어 있으며, (사진 22-②~③) 이들은 퇴적층 내에서 비교적 상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59년의 태풍 ‘사라’ 또는 그 이후에 형성된 퇴적층으로 판단된다. 반면, 하위 퇴적층에서는 편년이 가능한 유물이 전무하며, 모래와 자갈 사이로 형성된 복천 수맥에 의하여 퇴적층 굴착시 다량의 지하수가 용출되었다. 라인당 3개소에 설정한 테스트피트에서는 퇴적층의 전체적인 두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라인별 복단의 경우 80~250cm로 확인되어 그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여기서 상위 퇴적층은 0~100cm, 하위 퇴적층은 50~190cm로 측정되었으며, 별다른 속성은 보이지 않는다.

생토층(IV 층)은 신라왕경 유적 등이 분포된 경주분지에 공히 존재하는 층위로서 자갈이 혼입된 황갈색 사질점토층이 매우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회청색 사질점토층이 보이고 있으나 색상 이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토층은 지질의 경도가 매우 높아 신라왕경 유적 등에서 확인된 고건축물 기초에서는 이 층위에 다다르면 더 이상 굴착을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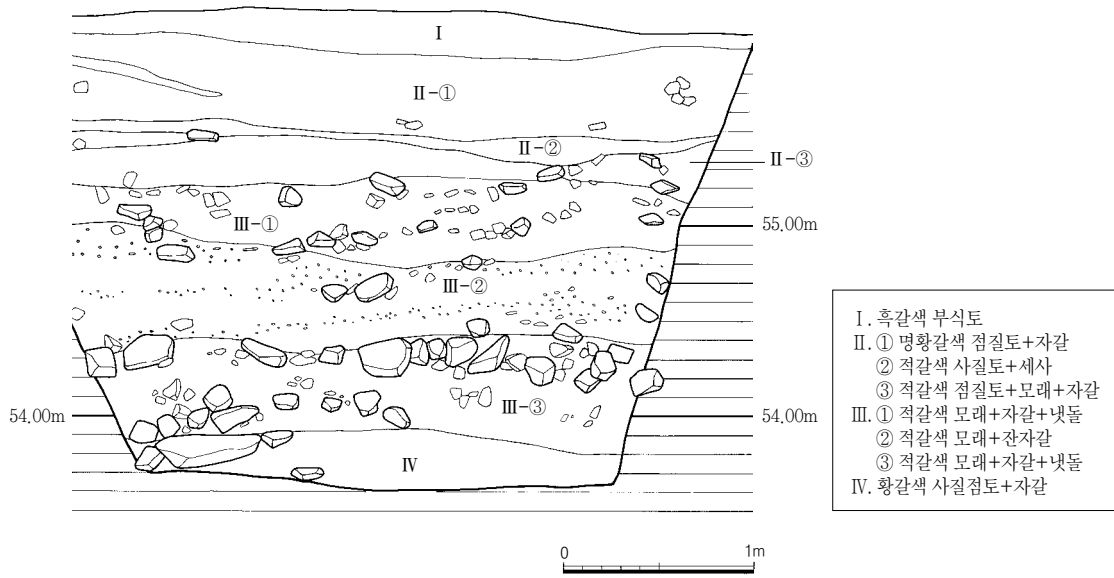
생토층 윗면의 해발고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360 라인은 55.3~55.7m로서 고저차가 심하지 않지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서히 낮아지고 있으며, E400 라인은 대체적으로 55.6~56.2m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으나 중간 지점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져 조사갱 북단에서는 54.5m로 측정된다. E440 라인은 대체적으로 55.9~56.9m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으나 역시 중간 지점부터 서서히 낮아져 조사갱 북단에서는 53.9m로 측정된다. E480 라인은 55.9~56.7m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으며, N288지점에서는 56.7m에서 0.5m 가량 층단상으로 떨어져 조사갱 북단에서는 54.7m로 측정된다. 그리고 E570 라인은 56.0~57.1m의 범위내에 분포되어 있으며, N238 지점에서 57.1m에서 0.6m 가량 층단상으로 떨어져 북단에서는 56.5m로 측정된다. E600 라인은



도면 33. E440 토층도



사진 39. E440 토층 세부



도면 34. E600 토층도



사진 40. E600 토층 세부

55.8~57.3m, E640 라인은 56.5~57.3m 범위 내에서 각각 분포되어 있다. 이로써 E360~640에 이르는 280m 구간에서의 생토층 윗면은 1.2~1.6m의 고저차를 보이는 동고서저형이며, 남북 방향의 지형은 북천 변에서 북천 중심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남고북저형으로 확인되었다.

위에 언급한 층위 가운데 퇴적층은 전형적인 하상의 토층 양상으로서 생토층 위에서 여러 겹으로 중복된 퇴적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근래의 생활용품이 혼입된 최상위 퇴적층은 편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하위로는 층서상의 순위 정도를 가늠하는 선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퇴적층 상위의 성토층과 표토층은 부지 생성 이후에 형성된 층위로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자갈,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토양 위에 다른데서 흙을 가져다 매립하였으며, 이후 40년 가까이 농작물 경작을 계속해 오면서 유기질이 혼입된 표토층에 생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遺構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에서는 제방, 점토대 등의 유구를 비롯하여 일정기간 높지로 사용되었던 뺨층이 확인되었다.

가. 堤防

유적 남단부의 원효로 경계선을 따라 1960년대까지 사용되었던 북천의 구 제방이 잔존하고 있으며, E360~E440 라인에 걸쳐 3개소에서 확인하였다. 제방은 20~50cm 크기의 냇돌을 이용한 막돌쌓기 방법으로 축조하였으며, 자갈 등으로 틈새를 메우고 수직대비 55° 가량 뒤로 눕혀 쌓아 구조적 안정성을 꾀하였다.(사진 41)

E400 및 E440 라인에서는 제방 석축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E360 라인에서는 교란이 심한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북천이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곡류함에 따라 홍수시 제방의 붕괴 위험성이 높았던 곳으로 판단된다.



사진 41. ① 제방(북에서), ② 제방(동에서)

나. 粘土帶

유적 서단부에 해당하는 E360~E400 라인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1열의 점토대가 노출되었으며, 지금까지 길이 약 71m가 확인되었다. 모래와 자갈 등으로 형성된 하상 퇴적층을 거의 수직으로 절개하고 황갈색과 적갈색 점질토를 채워 넣었으며, 횡단면의 규모는 너비 1.0m, 높이 1.1~1.2m로 측정된다. 점토대 하단 생토층과의 경계부분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E360 라인에서는 점토대 밑바닥이 생토층과 맞닿아 있으나, E400 라인에서는 생토층을 10cm 가량 굴광한 것으로 밝혀졌다.(도면 35, 사진 42)

구황동 원지 유적 동단부에 해당하는 E300 라인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점토대(지하수막 차단시설)가 남북방향으로 길게 확인된 바 있다. E440 라인에서는 점토대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 E400~E440 사이의 수로 벽면에서 일부 노출된 점토대가 남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그 방향도 남쪽으로 꺾이고 있다. 이러한 노출양상으로 보아 점토대는 동서 길이 140m가 채 되지 않는 한정된 범위, 즉 곡류지점의 북천 남안을 에워싸듯이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추측컨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하상퇴적층 내부에 형성된 수맥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점토대를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 빨층

유적 동단부에 위치하는 E660 라인에서 대규모의 흑갈색 빨층이 노출되었다. 조사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선 대비 서쪽으로 1m 확장한 다음, 벽체의 경사를 많이 주면서 4.2m 깊이까지 제토하였다. 빨층은 현지표하 1.1~3.8m에 걸쳐 전체 2.7m의 두께로 잔존하고 있으며, 남북방향 단면은 황갈색 사질점토층의 생토층을 굴광한 최대 너비 7.4m의 반원형으로 확인되었다.(사진 43)

빨층 내부에는 매립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냇돌, 황갈색 사질점토, 흑갈색 부식토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매립에 따른 교란으로 인하여 빨층 상면 라인은 불규칙적으로 형클어져 있다. 더불어 조적식 건물벽체 파편, 양은쟁반(상표명 '선학35') 등이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빨층의 매립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사진 36-②~③)

이러한 대규모 빨층이 형성되려면 장기간 물이 고여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빨층 및 그 주변에서 많은 양의 지하수가 용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담수 조건은 충분히 만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조사시, 용출수를 제거하기 위한 양수작업을 병행하면서 지표하 4.5m 깊이까지 제토작업을 진행하는데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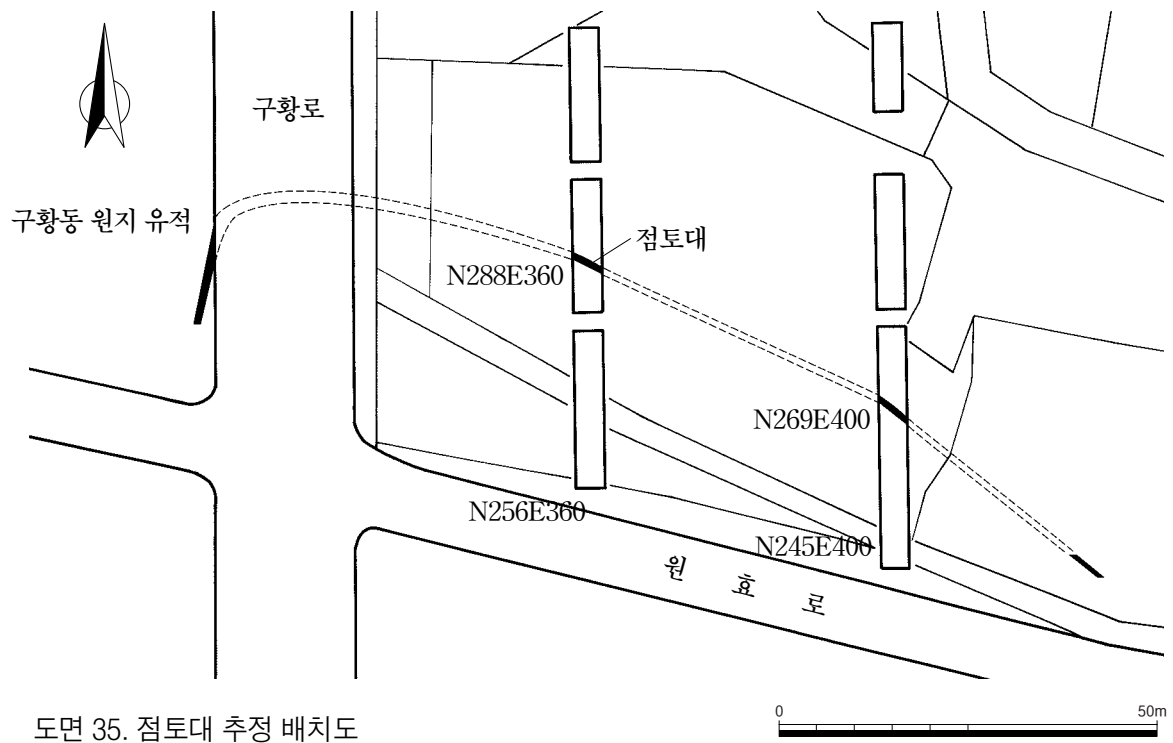


사진 42. 점토대(서에서)



사진 43. ① 뽕층(동에서), ② 뽕층과 생토층 경계 세부

V. 石造物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에서 출토된 석조물은 초석 2점, 장대석 2점 등 모두 4점이며, 대부분 하상퇴적층에서 교란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강물에 의하여 상류 쪽에서 굴러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1. 礎石

가. 초석 1(도면 36-①, 사진 44-①)

방형 초석이며, 주좌는 별도로 다듬지 않았다. 윗면은 비교적 곱게 정다듬질을 하였으나 측면은 거칠게 다듬었다. N256E360 조사갱에서 출토되었다.

가로 40cm, 세로 40cm, 두께 24cm.

나. 초석 2(도면 36-②, 사진 44-②)

방형 초석이며, 역시 별도의 주좌는 다듬지 않았다. 윗면을 곱게 정다듬질 하였으며, 측면과 아랫면도 비교적 고르게 다듬었다. N234E440 조사갱에서 출토되었다.

가로 62cm, 세로 58cm, 두께 28cm.

2. 長臺石

가. 장대석 1(도면 36-③, 사진 44-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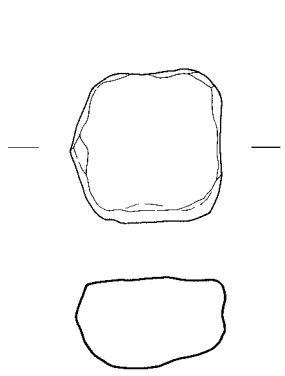
용도 불명의 장대석이다. 비교적 곱게 다듬었으며, 일부 결실되었다. N280E360 조사갱에서 출토되었다.

길이 50cm, 너비 29cm, 두께 1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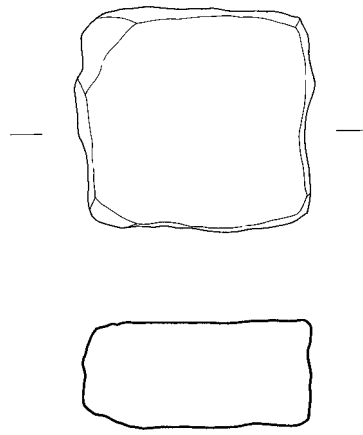
나. 장대석 2(도면 36-④, 사진 44-④)

역시 용도 불명의 장대석이다. 상당 부분 결실되었으며, 현재 2편으로 파손되어 있다. N280E480 조사갱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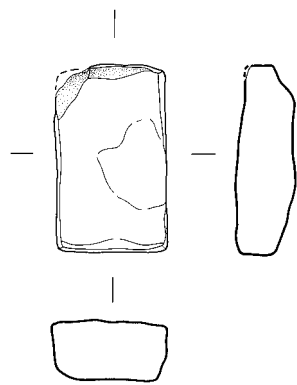
길이 86cm, 너비 35cm, 두께 1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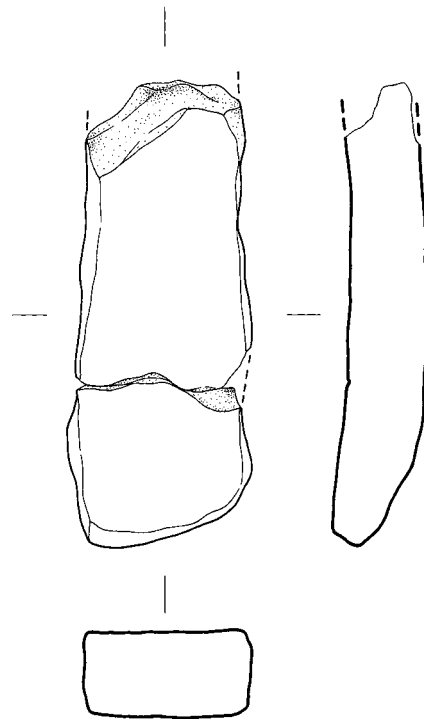
① 초석 1



② 초석 2



③ 장대석 1



④ 장대석 2



도면 36. 석조물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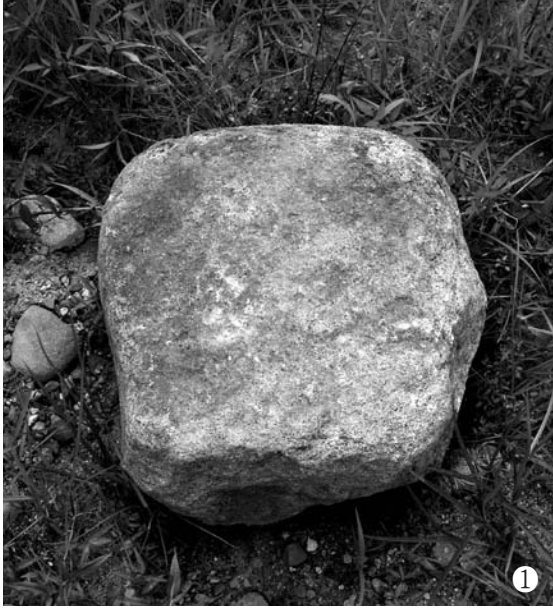


사진 44. ① 초석 1, ② 초석 2, ③ 장대석 1, ④ 장대석 2

VI. 맺음말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천의 하상이었던 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지역 전역에 걸쳐 강물의 흐름에 의한 하상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다. 하상퇴적층은 대체적으로 유적의 남쪽 부분은 얇고 단순한 편인데 비하여 북쪽으로 갈수록 두껍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운동화밑창, 비닐조각 등 최근의 생활용품이 혼입되어 있기도 하였다. 하상퇴적층 위층에는 일정한 두께의 성토층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1970년대 잡종지로 편입된 이후에 다른 곳의 잡동사니 토양이 반입되어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적의 남쪽 경계선을 따라서는 상당기간 북천의 남안을 보호하였던 제방이 석축 형태로 잔존하고 있었다. 유적 동단부에서는 최근까지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늪지에 의하여 퇴적된 상당한 규모의 빨층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한편, 유적 서남우에서는 성토층과 맞닿는 깊이까지 하상퇴적층을 溝狀으로 절개한 다음 그 사이에 점토를 다져 넣은 일종의 점토대가 노출되었다. 모래와 자갈로 형성되어 지하수의 흐름이 자유로운 하상퇴적층과는 달리 점토대가 조성된 구역은 자연스럽게 지하수맥이 차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황동 원지 유적의 동남우에서도 점토대와 같은 형식으로 조성된 ‘지하수맥 차단시설’이 확인된 바 있는데, 그 범위는 두 유적 일부를 포함하여 140여m 구간에 걸쳐 있다. 점토대를 비롯한 주변지역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서방향으로 진행하는 점토대 남쪽으로는 북천의 지하수가 통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점토대의 성격과 조성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궁금증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동 유적에서 밝혀진 하상퇴적층, 제방, 점토대, 빨층 가운데에서 점토대를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사용되었던 구조물이거나 지속적인 변화가 가해졌던 자연적인 현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 40m의 등간격으로 북천 하상에 대한 토층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하상퇴적층과 성토층의 양상을 학계에 보고하는 것도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점토대가 노출된 구역은 유구를 훼손하지 않도록 일정한 두께로 성토한 이후에 신라왕경숲을 조성하였으므로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추후 인근 지역에 대한 현상변경을 추진할 경우에는 점토대를 비롯한 관련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발굴조사보고서 초록

보고서명	경주 구황동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발행일	2008년 7월 25일	
발간기관	명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주소	경북 경주시 정자 1길 3(마동 931번지)			
	TEL	054)777-8800	FAX	054)777-8893	
집필·편집자	유홍식, 윤가량				
조사연유	신라왕경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제발굴				
발굴조사자	윤근일, 윤형원, 유홍식, 윤가량, 이명옥, 최민아, 정은주				
유적소재지	경북 경주시 구황동 883-44번지 일원(42필지)				
조사면적	40,570m ² (12,272평)				
유구종별	제방, 점토대 등				
특기사항					

學術研究叢書 51

경주 구황동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008年 7月 20日 印刷

2008年 7月 25日 發行

編輯·發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경북 경주시 정자 1길 3(마동 931번지)

Jeongja 1gil 3, Gyeongju City,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054-777-8800 Fax. 054-777-8893

<http://www.gcp.go.kr>

制作

(주)아이컴

대구광역시 중구 북내동 5번지 아이컴빌딩

Tel. 053-422-1472 Fax. 053-422-1475

ISBN 978-89-960067-9-4 94910

<비매품>

